



북한의 농업

김성남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3
4	讲义	49
5	퀴즈	66
6	보고서	71
7	자료	73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북한 농업의 이해>는 북한 농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 및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근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할지 배울 수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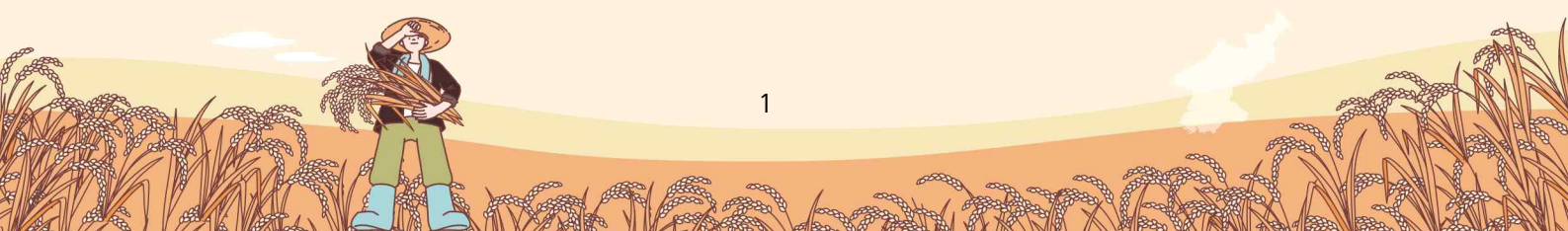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북한 농업의 근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2) 오늘날 북한 농업의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북한 농업의 기초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의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북한 농업과 축산업의 주요 특징을 통계 수치를 통해 살펴본다.
- (3) 향후 남북한 간 농업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지 학습한다.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비롯하여, 농업 및 축산업 분야 협력 방안, 나아가 북한 농업의 체제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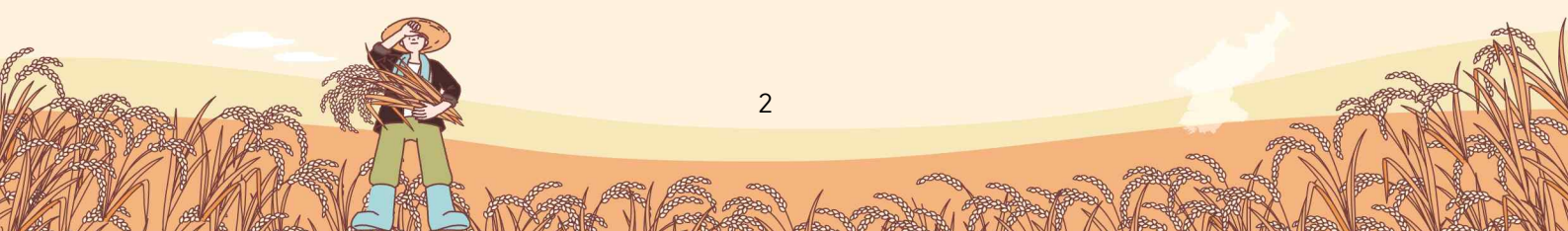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현대 북한 농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북한 농업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북한 농업의 현황에 대해 통계 수치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은 이 강의를 학습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 농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차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북한 농업의 초기조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
2주차	북한의 농업 현황과 제도
3주차	북한의 축산업
4주차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
5주차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 1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6주차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 2 : 농업분야 체제 전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4

주차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

4-1

북한의 농업금융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의 농업>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 관련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농업을 금융과 유통 측면에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란, 간단히 말해 자금의 유통을 말하는데, 농업금융이라 함은 농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융의 발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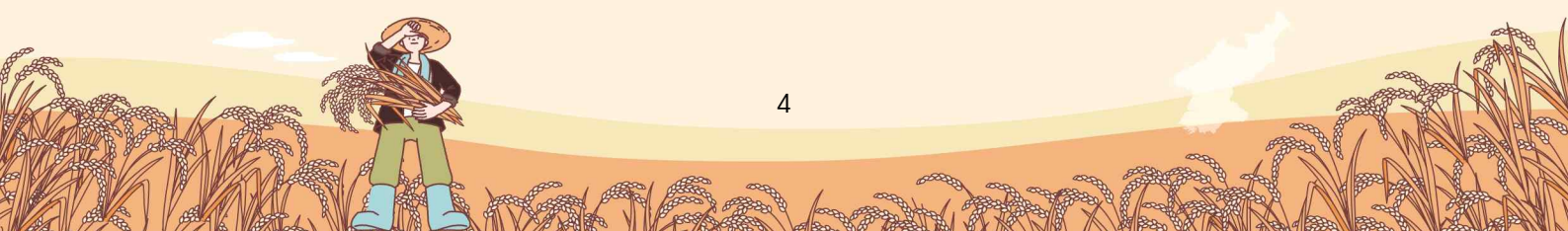
경제주체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소득보다 소비하는 것이 적어서 자금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하기도 해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금 공급과 자금 수요를 연결하는 것이 금융 또는 금융 시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제주체라도 생산 방식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자금이 남고, 어떤 시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상의 자금 수급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연중 생산은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 또한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작물의 생장기 동안에는 비료 등 농자재나 노동 투입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자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금융은 농업의 발전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자금의 유통인데 비해 유통은 생산물 자체의 유통을 의미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산물 생산지역에서는 자가 소비되고 남은 잉여 농산물이 많은 반면에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통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현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유통, 다른 말로 하면 지역 간의 물류 이동이 시장 확대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의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산업으로서의 북한 농업의 발달 과정을 평가해 보면, 북한 농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경제는 건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국가의 총 식량작물 생산량이 수요량에 못 미치고 외화 부족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역량도 낙후되어 있고, 시장 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과연 농업금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근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상업은행 제도나 전자적인 방식의 금융거래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 부문에서만 보면, 금융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건국 초창기를 살펴보면 사뭇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76년에 김일성 주석은 당과 경제기관 일꾼들과 담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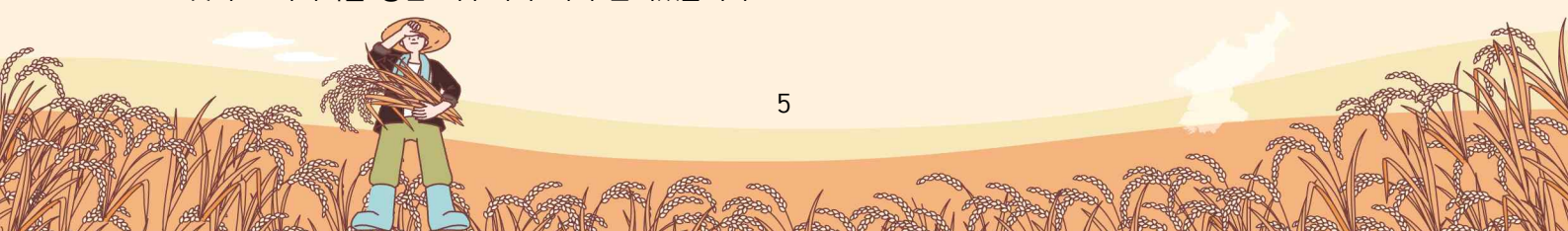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농촌금융사업 경험에 대하여 물어보아도 그것을 조리있게 해설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지난날 우리가 농민은행을 창설하고 운영한 경험을 책으로 써낼 데 대하여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과업을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할 목적으로 농업금융기관인 농민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경험을 정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실제로 ‘농촌금융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라는 이름의 책자가 그 해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자를 통해 북한의 건국 초창기 농업금융기관 설립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농민은행 설립은 식민지기로부터 해방되고 난 바로 이듬해인 194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한의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56년에 비로소 농업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은행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데 비해 북한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농업금융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농업금융기관의 설립을 서둘렀나 살펴보면, 북한의 토지개혁과 나아가서 토지개혁의 배경이기도 했던 남북한의 좌우익 정치세력 간 정부 수립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 상황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과 공산주의 세력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소련 군정하에 있던 북한지역에서 신속하게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농업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 것이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제의 해체 문제였습니다.



지주란 문자 그대로는 토지의 소유주를 말하는데, 지주제라고 할 때의 지주란 단순히 토지의 소유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이라는 관점을 가미하여, 토지의 소유주이지만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대부분의 농지가 점유되어 있고,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 농인 상태에서 그러한 부재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제는 조선 후기 이후 발달하였는데,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지주, 그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 토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소작을 주는, 즉 임차를 주고 있는 지주가 식민지기 농정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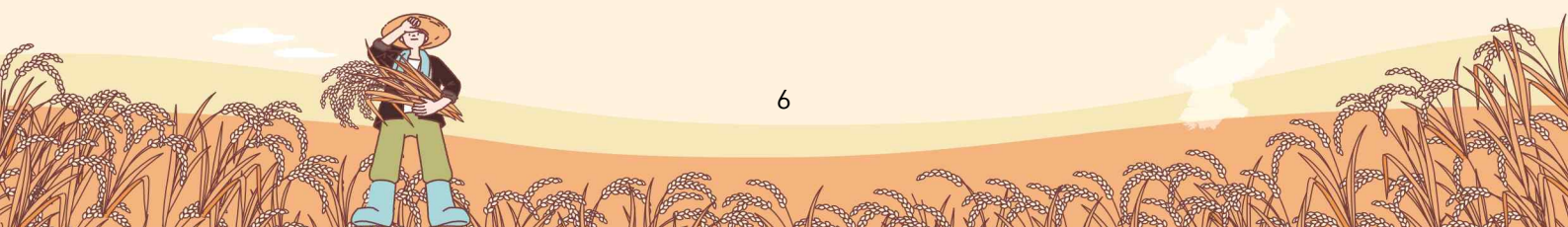
식민지기인 1930년대 이후 이러한 지주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정책적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농지 소유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는 이러한 지주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주제의 현황을 수치로 살펴보면 1914년 현재 남북한 통틀어 전체 농지의 52%가 소작지였는데, 지목을 기준으로 보면, 수익성이 높은 논에서는 65.3%, 상대적으로 자가소비 목적의 소규모 경작이 많았던 밭에서는 44.2%가 소작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1944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의 62%, 논과 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논 72.6%, 밭 54.6%가 소작으로 경작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제 해체를 위한 토지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분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주제가 없어지려면 기존의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실제 해당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지주의 토지는 유상으로 정부가 매입해야 할지 아니면 무상으로 몰수해야 할지,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에는 무상으로 주어야 할지 대가를 받고 주어야 할지, 대가를 받는다면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예컨대 상환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정치진영에 따라 각기 다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북한지역 내에서도 진영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김일성이 주장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안이 급격히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개혁 방안이 소련 볼셰비키 중앙당에서 확정되고, 이것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통보됨으로써 공식적으로 1946년 3월에 토지개혁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남한의 경우 1948까지 지속된 미군정 하에서는 과거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만을 유상분배하는 데 그쳤을 뿐, 전체 소작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은 195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데 나섰던 것도 이와 같이 해방 후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한 데에서 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법령이 공포된 다음달인 1946년 4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연설을 통해 농업자금 지원을 통해 농민의 영농사업을 보장함으로써 토지개혁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이 끝나면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모두 땅의 주인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는 영농사업을 잘하도록 농민들을 백방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데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의의를 가집니다.”

“농민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을 하나 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응분의 출자를 하게 하여 농민은행을 농민들의 협동적 신용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날 일제놈들이 우리나라의 농촌을 수탈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금융조합들을 우리가 접수하였는데 그 재산도 농민은행을 조직하는데 밑천으로 써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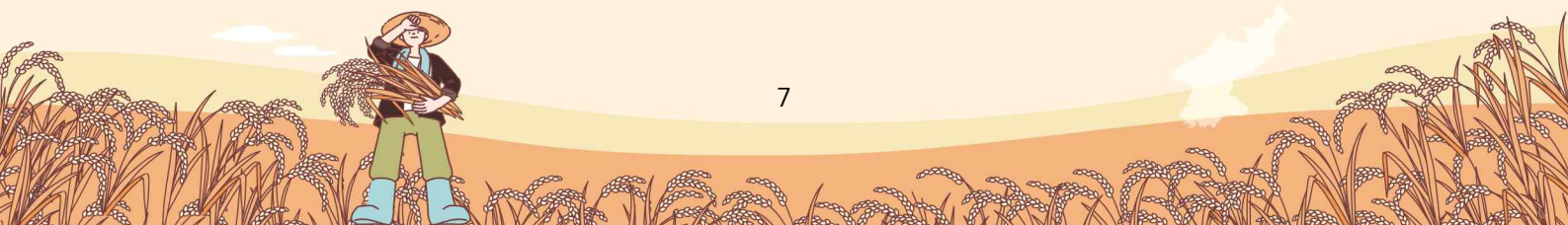
김일성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협동적 신용기관을 표방하면서 식민지기 금융조합의 자산을 인수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주권도 발행하여 농민은행 창립 자본금을 조달하여 북조선농민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946년 4월에 제정된 '북조선농민은행 설립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5조. 북조선에 있는 각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 각 도지부는 그 소유에 속한 건물, 비품 등 일체 소유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하고 이에 잔여현금을 합하여 농민은행에 출자할 것이다.

제6조. 각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 각 도지부는 5월 1일 현재로 동결된 대차 이외의 대차를 북조선 농민은행에 인계할 것이다. 단 손실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대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한에서는 농업금융기관의 설립이 훨씬 늦었기 때문에 식민지기 농업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던 금융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 남한지역의 금융조합은 대한금융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료 공급 등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작 본래 업무인 농촌 신용공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농업금융이 위축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농업금융기관, 즉 북조선농민은행을 설립할 때 금융조합의 자산을 인수하는 한편 농민 대상의 주권도 발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현재 증권박물관에 남아있어 소개합니다. 1946년 3월에 서례수라는 농민이 200원을 내고 동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등기될 북조선농민은행의 2개 주권 주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증서입니다. 이에 관하여 '북조선농민은행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북조선에 거주하는 농민은 각자 반드시 이 은행에 응분의 출자를 할 것이며 농민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의 전체 농민 93%가 농민은행에 출자금을 납부하였으며, 농민은행 전체 자본금의 절반이 농민으로부터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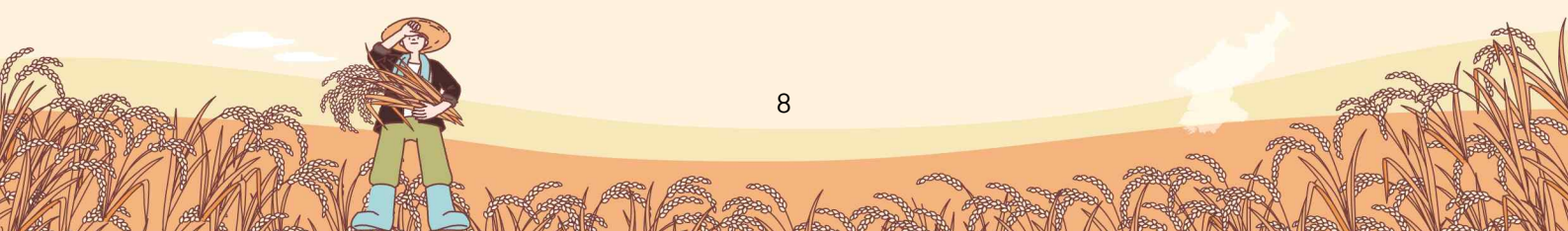
북조선농민은행은 국가의 농업개발 금융을 취급하는 한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대출도 중요하게 취급하여 영농자금, 주택마련자금, 생활자금 용자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운영 실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1948년 김일성은 농민은행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대부를 합니까? 대부를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상공업자들에게는 대부를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책을 반영하여 이듬해에 무축농가 대상 축산자금 대부사업 등 농민 대상의 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의 모습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의 전개를 보면 썩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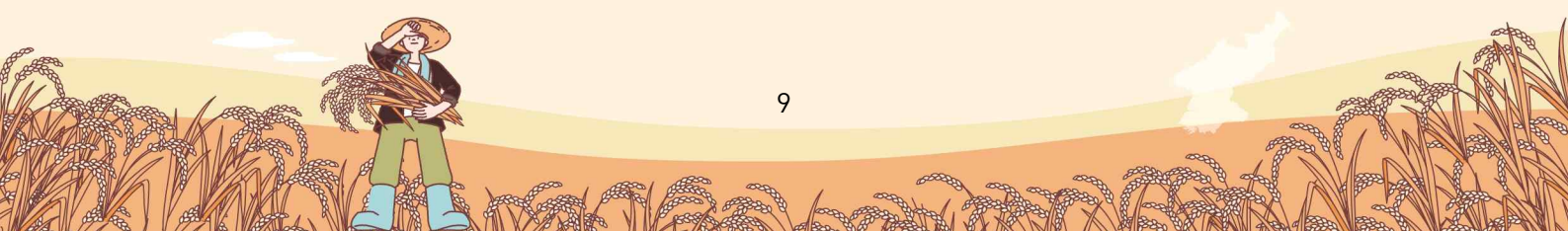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북한 건국 초창기 농업금융기관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직후 시기에 북한은 남한보다 선제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농민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확보하고자 식민지기 금융조합을 북조선농민은행으로 빠르게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에 대한 대부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과정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민심을 얻고자 하였지만 당초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 역시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1950년대에 들어 새로운 농업금융기관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북한의 농업금융 2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 북한지역의 상당수 농업생산기반도 파괴되게 됩니다. 정전을 앞둔 1953년 5월~6월 간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의 저수지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농업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정전 후에 북한 지역에서도 농업생산의 재건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북조선농민은행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농민은행은 수익이 나는 기관 대출에만 치중하고, 농민에 대한 대출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농민은행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1952년에 조사해 보니 농민은행의 전체 대출의 60%가 기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김일성은 기관 대출은 모두 중앙은행으로 이관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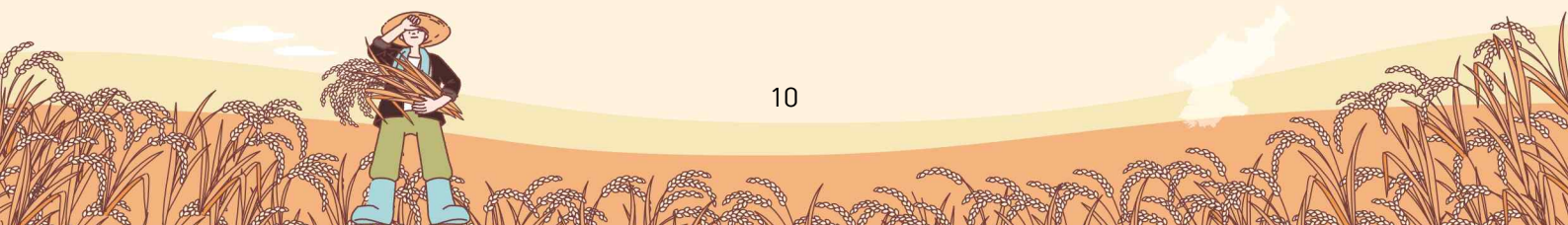
“농민은행이 농민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대한 대부 업무는 다 중앙은행에 넘기고 농민은행은 전문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기관에 대한 업무는 중앙은행이 전담하도록 하고, 농민은행은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농민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닌 예금모집 실적에서도 농민은행의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지역의 잉여자금을 농민은행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은 당초 목표로 했던 수치의 20% 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민은행 설립 당시 농민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 농촌경제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립형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은행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는 가운데 1957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정책이 실시되게 됩니다. 바로 농촌지역 단위별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농업협동화운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1953년부터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농업협동조합 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농업증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농민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농가는 경제적으로 영세하여 농사용 소나 농기구가 충분하지 않지만, 농민들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부족한 농우나 농기구를 공유하여 쓰게 하면 자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의 경우 생산 방식상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도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틀 내에서의 공동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노동 관행은 소거리, 품앗이라고 하여 전통 시대에서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한국전쟁기에 영농물자가 부족해지자 당국이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농민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려는 농업협동화운동은 이러한 전통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공동노동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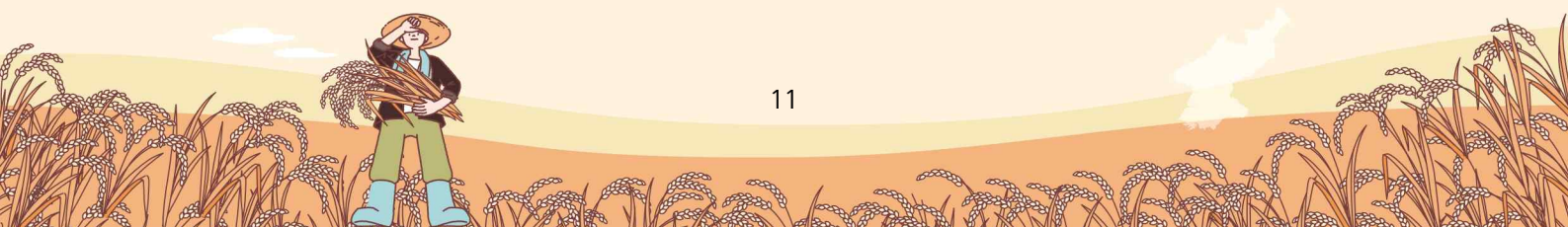
일차적으로는 농업 증산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려는 것이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협동화운동은 4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전체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한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서 신용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말단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조직화 운동이라는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기존에 농민은행에 출자했던 농민들의 출자분 모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관하도록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리 단위로 만들어졌는데, 각 농민은 기존의 농민은행에 출자했던 자금을 자신이 사는 리에 신설된 신용협동조합에 대체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사업은 이제 신용협동조합의 고유한 업무로 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자료를 통해 당시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농민은행은 농업에 관한 기관대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농민은행의 군 지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실무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리 단위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은 상위 행정기구인 군의 인민위원회로부터도 지도를 받는데, 군 인민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재정보고 대회를 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을 수시로 검열하였다고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은 가축구입 등 영농자금은 물론 월동준비, 자녀교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북한에서 펴낸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신용협동조합은 매우 짧은 기간에만 운영된 채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앞서 1957년에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1958년 말이 되면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농업협동화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에 보면 마을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가운데 마을보다 더 큰 단위인 리 별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조합을 모두 리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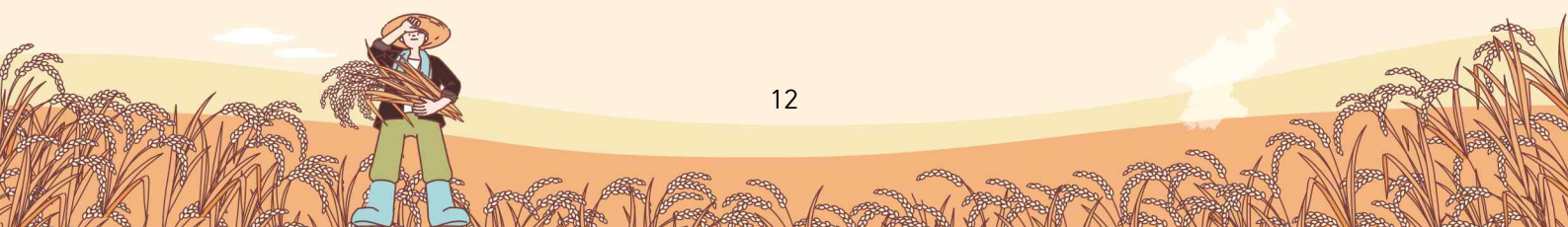
그 결과 공동생산, 신용사업, 마을상점 운영 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기능이 모두 리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사업은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신용부라는 조직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리 단위로 통합되어 출범한 농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말단 농업조직인 협동농장이 1950년대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산하 신용부의 운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북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산하에 신용반이라는 하부 조직을 두고 신용반별로 저금 목표액을 설정한 후 목표달성 경쟁을 유도해서 저금액을 크게 늘렸다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출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물 구매 예약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업생산 기능과 금융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협동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업협동화운동이 완수되자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더욱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관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농민은행, 이 시기에는 명칭이 조선농업은행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러한 농업금융기관은 그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에 흡수되게 됩니다. 계획경제가 심화되면서 농업관련 기관도 국가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재를 조달받아 계획에 따라 부여된 생산량을 생산한 후 지정된 기관에 납품하면 되었기 때문에 금융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화폐는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중앙은행은 대금 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만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면 되었습니다. 금융의 기능이 각 경제주체 간 자금의 수급 불일치, 자금 수급의 시간상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정 역할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가의 생산계획이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 기능을 맡고 있던 협동조합 신용부도 그 기능이 필요없게 되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1960년대 이후 명목상의 조직으로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농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농자재 등을 공급받아 농산물을 생산하여 납품, 이 경우는 수매라고 합니다만, 수매에 응하면 되기 때문에 농업생산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생활용품은 배급을 받고,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도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로부터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로써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필요성도 거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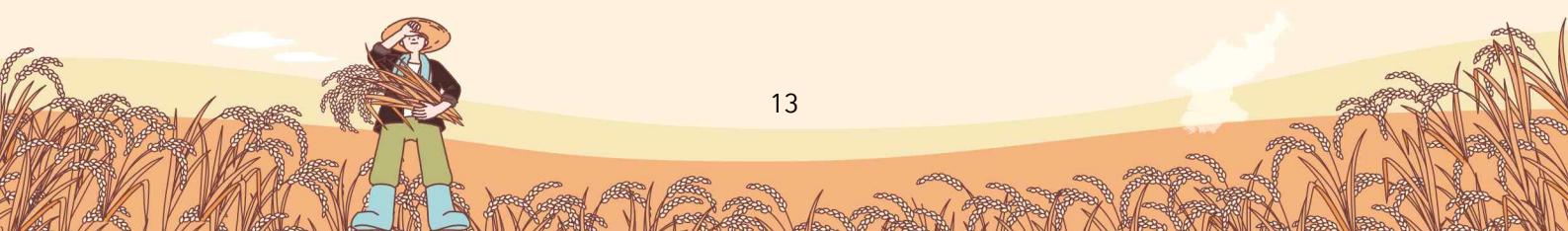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불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로 대외무역이 붕괴되면서, 기존에 누적되었던 계획경제의 폐단이 표면화되었던 것입니다. 농자재 공급이 점점 줄어들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완전히 끊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 단위인 협동농장에 부여되었던 국가계획에 따른 생산 의무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비공식 시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획의 공백을 비공식 시장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비공식 시장에 몰래 내다 팔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부족한 농자재를 비공식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농자재를 생산하는 기관 역시 원자재를 조달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산한 농자재를 국가에 납품하지 않고 몰래 시장에 내다 판 것입니다. 시장이 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의 필요성이 생겨나자 비공식 금융시장도 발달하게 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밀무역 등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라는 신흥 세력이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돈주나 권력있는 당 간부 등을 통해 비공식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협동농장도 이러한 비공식 금융시장에 의존하면서 농업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개별 농민은 주로 곡물고리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지면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로 갚는 것으로 약속하여 잘 사는 집에서 식량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와 같은 곡물 고리대를 포함한 농민 개인 차원의 금융시장 활용 경험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5명 중에 1명 꼴로 금융시장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업생산이 협동농장 단위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협동농장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이 보다 진전되어서, 개별 농민이 생산 주체로서 자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민 차원에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투자 지출을 늘려야 하고, 시장가격이 높은 유리한 시기에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금융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 농업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유망한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 북한의 농산물 유통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함께 유통은 일차적으로 상품의 공간상의 수급 불일치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 발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농업경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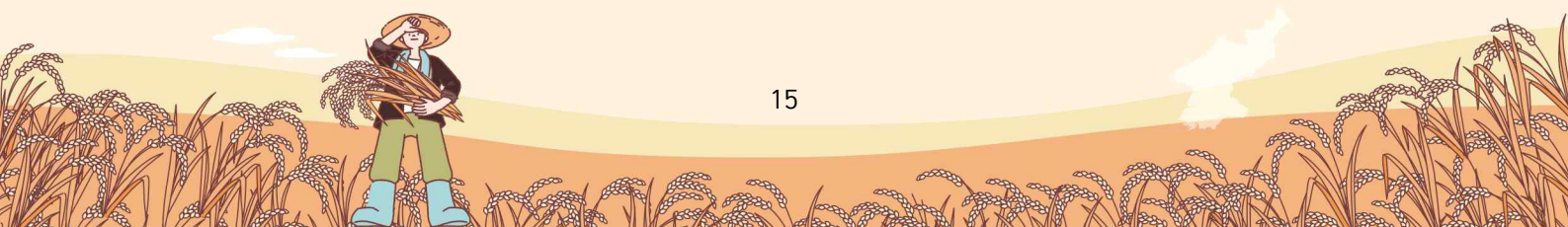
북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북한의 전통 국영 상업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국영상업은 최말단의 상품 수요를 국영 상업망의 '주문제'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국가 생산계획에 반영해 생산한 후, 국영 상업망을 통해 다시 공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상품공급원칙으로서 이러한 주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획기관은 상품주문서에 따라 상품 생산과 분배,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며 상품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즉,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파악한 후 이를 완전히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수요 파악과 공급'이라는 국영상업 체계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가정수첩'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이다. 상업일군은 상품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 가정수첩'이란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이었던 정춘실이 주민 수요의 파악을 위해 실제 활용하였던 방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춘실은 '우리 가정수첩'에 주민들의 복장 치수와 신발 문수, 결혼·회갑날짜, 집안 대소사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활용해 적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확보해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1964년 김일성은 자강도 지역을 현지 지도하면서 정춘실이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상업의 싹이며 아주 좋은 수요 연구 방법이자 사회주의 상품공급 방법이라고 극찬하였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후 '우리 가정수첩'은 모범적인 사회주의 상업사례로서 간주되었으며, 1992년 <사회주의상업법> 제정과 함께 법 조항으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획경제가 잘 작동하던 시절에 북한에서는 개인이 필요한 치약과 같은 생활용품도 일일이 몇 개씩 필요한지 다 조사하여 배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단,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곡물 등 중요 농산물에 한정해서만 이러한 수요 파악에 의한 생산·공급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의무수매계획을 작성하고 협동농장으로부터 계획수매, 이외 농산물은 국영상업기관을 통해 자유수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계획생산이 가능한 제조업과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간의 근본적인 생산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1989년에 북한에서 발간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 실현 경험」책자를 통해 국영 농산물 유통 수매 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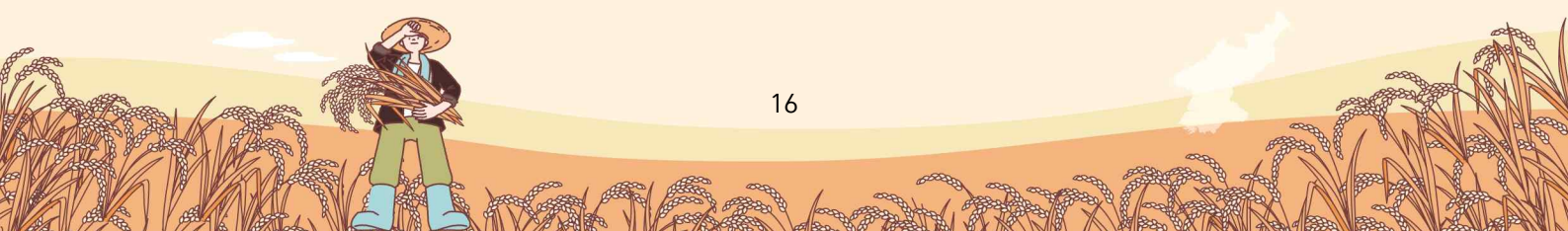
본 책자는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형해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경제위기 직전에 발간된 것으로서, 북한의 전통적인 농업 부문 국영 상업체계의 내용을 잘 서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1945년 해방 당시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극히 영세하고 개인 상인들의 모리 행위가 극심하여 국가의 개입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상업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민지기 상업은 "상업시설의 대부분은 극히 낙후하고 영세적인 것이었고, 그것마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농촌지역에는 상점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농촌상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상인들은 ... 농산물을 헐값으로 사서 도시에 가져다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모리간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 당국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상업제도를 청산하며, 개인상인들의 투기와 모리 행위를 막기" 위해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을 창설한다고 천명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농촌지역에 소비협동조합이 조직되어 농촌에 대한 소비품 공급과 함께 농산물 판로개척 역할도 했으나, 1964년부터는 국영 상업체제로 재편하여, 소비상품류에서 소비협동조합 포함한 사회주의 상업의 비중은 1946년에 3.5%에 불과했으나, 1949년에 56.5%로 크게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1959년 소비협동조합의 기능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고, 1964년에 이르러 협동농장의 유통사업을 국영 상업기관이 흡수하는 한편, 초창기에는 개인상업도 사회주의상업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하였으나, 1958년 이후에는 개인상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국영상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은 계획수매, 이외 농산물은 자유수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계획수매란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은 국가수매기관과 협동농장에 국가의무수매계획을 하달하고 수매사업소가 수매를 실시한 후 식량공급소를 통해 배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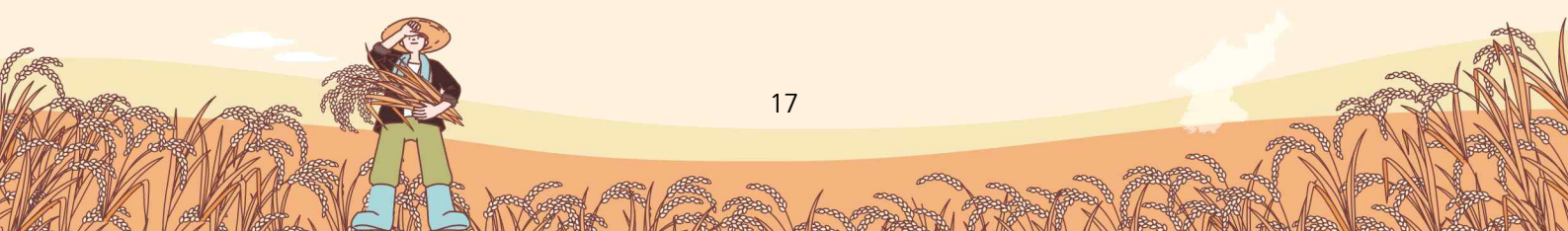
자유수매란, 중요 농산물 이외의 식료품, 농부산물, 텃밭 부업생산물은 수매상점이 자유수매하고, 국영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생산기관으로 계약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수확 후 수매뿐만 아니라 수확기 이전 생산자와 수매자 간 품종, 수량, 규격,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계약수매 방식도 활용되었습니다.

예컨대 도시 지역의 과일·남새·채소 국영상점과 협동농장 간에 품종별, 시기별로 수량과 가격을 정해 미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 농촌지역을 '상품농산물생산기지'로 확보하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현금수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공산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 교환수매 방식도 활용합니다. 교환수매란 수확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맞교환하는 수매 방법인데, 이를 위해 수확 이후 협동농장 결산 분배 시기에 맞춰 TV수상기, 재봉기, 자전거, 가구 등 공산품을 농촌지역에 집중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매 장소와 수매 담당자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농산물 유통을 최대한 국영상업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실시하여, '수매일군'들이 생산 현장을 직접 이동하며 수매하는 현장·이동수매 방식, 농촌 자연부락 단위별로 위탁수매망을 조직하고 선정된 위탁수매원이 수매하는 위탁수매 방식, 농민들이 판매하기 위해 농민시장에 가지고 나온 상품을 국영상점이 수매하는 위탁수매 방식도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통적인 국영상업 체계에서의 상품 가격은 '유일가격'이 원칙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도농 간 생활 수준에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 단일 가격에 판매하도록 조치한 반면, 남새, 과일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시기별, 등급별로 수매가격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국영상업 체계 이외에 농민시장을 통한 시장 판매도 허용하여 국영상업을 보완하도록 조치합니다. 농민시장은 협동농장 휴무일에 개설되는 정기시로서, 농민들은 이를 통해 잉여 소비 농산물 및 텃밭 부업생산물을 판매하고, 협동농장도 단독 또는 연합 협동농장직매점을 통해 계획수매 이외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농민시장 내에서의 농민 수공업품을 제외한 개인의 공산품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며, 공산품은 오직 국영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하였습니다.

농민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단, 농민시장 내에 국영상점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경쟁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업 체계를 통한 시장가격 조절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시장 정책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국영상업 체계를 중시하면서도 시장 기능도 일부 활용하려고 한 점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인 국영상업 체계하에서도 시장을 체제 종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잘 통제하여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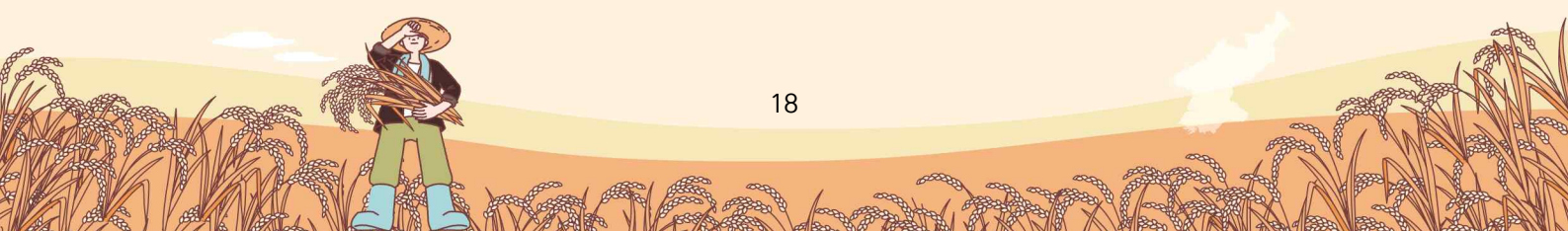
시장에 대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봉건사회에서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국영상업의 과도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농민시장을 행정적인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반대로 농민시장을 무턱대고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전에는 이러한 국영상업 체계를 통한 농산물 유통 기능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에는 농산물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협동농장도 비(非)국물을 기관·기업소에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비교적 잘 작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2003년 기존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취급 허용 품목을 확대하는 시장확대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 조치를 통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국영 기업소의 공산품 직접 판매와 수입 상품들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도 농민시장과 계약수매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수입 농산물의 시장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북한의 국영상업 체계는 형해화되기 시작하였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상인에게 농산물을 '비법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만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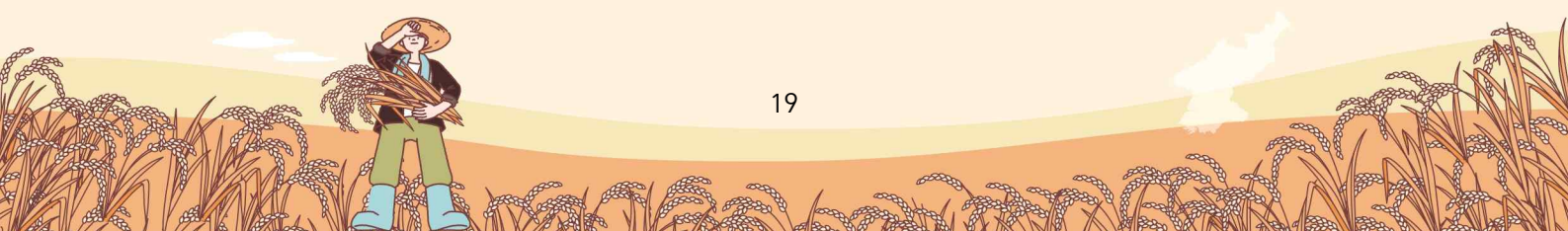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쌀의 경우, 도시 지역의 상인, 북한에서는 '날알 거두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간 상인이 인근 농촌의 농민시장을 돌며 매수한 후, 아파트 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하면서 도소매 판매하였다고 하며, 일부 대형 곡물 도매상의 경우 양정기관, 군부대 등 기관 창고를 이용한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옥수수나 감자 등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쌀과 비슷하게 민간 상인이 농촌 지역을 돌며 협동농장으로부터 매수하여 도시 지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의 경우는 개인 텃밭에서 기르는 경우도 많은데, 상인들이 텃밭을 돌며 매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식량작물과 달리 채소는 장기 보관이 안되고 금방 상해 버리기 때문에 대체로 지역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살펴보면, 개인 상업이 억제된 가운데 국영상업망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영상업이 잘 작동하던 시기에서 공산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시장, 즉 농민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국영상업망이 완전히 붕괴하게 되면서 민간 차원의 비공식 시장이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업 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의 국영상업망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대외무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과거의 농민시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유통전반을 제도화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 체계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향후 남북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향후 남북한 간 협력 방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농산물 유통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구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해 기업·기관소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에 따라 민간의 금융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장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협동농장 및 농가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금융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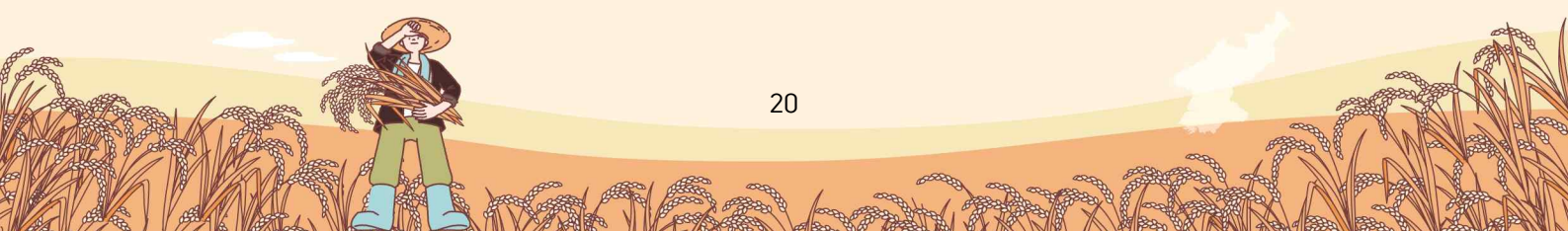
이러한 금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도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상업은행이 과연 충분한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며, 협동농장 대출 가능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북중접경지 및 도시지역에 비해 비공식 금융도 발달하지 않아,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선제적으로 농업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제도 재건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북한은 자신들의 선진적인 농업 금융 제도 사례를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업은행 신설 등 북한 당국이 일련의 금융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 과거 자금유통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도 다시 조명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해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업금융제도 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제안의 수용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는 물론 당초 개발 협력의 취지인 북한 농민의 자립능력 향상도 도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모델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관련 선행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남북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공동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및 운용이 필요합니다. 합작대상은 북한 중앙은행 또는 도 단위로 설립된 상업은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민 개인 대출 시, 현재 명목만 남아있는 협동농장 신용부를 부활시켜 일선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사업을 농업생산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돈과** 새끼 염소와 같은 소가축이나 농기계 등 투자자산은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을 통한 양허성 대출을 통해 할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 실적을 추가 대출 여부와 연계함으로써 대출금을 소비용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에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소가축이나 농기계가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이들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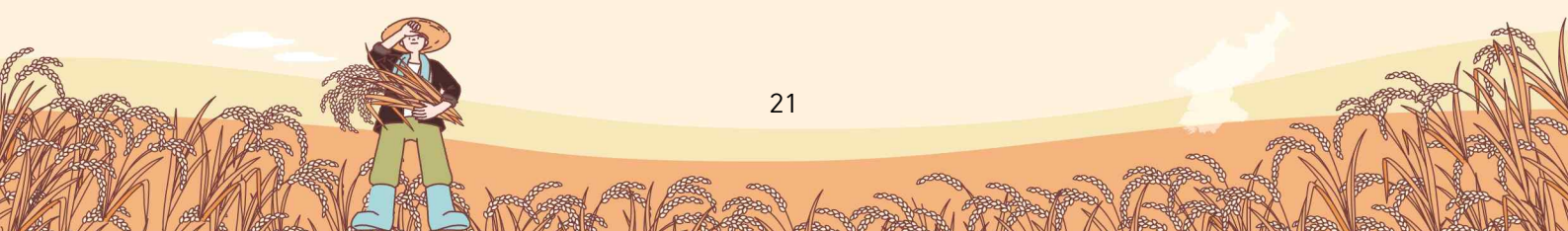
셋째, 초창기에는 협동농장만을 대상으로 대출사업 실시가 필요합니다. 과거 IFAD라는 기관에서 북한 농촌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면, 농민의 경영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대출을 실시할 경우, 농업생산 증진이라는 당초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농민 대출이 상환 지연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사업이 성과를 보인 이후, 채권보전 방안 마련을 통해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로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현재 개인 소비물품 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당분간 인적담보 설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적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농촌금융기구를 설립하면서 '5인 연합담보'방식을 활용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공동으로 보증·보험기구를 만들어서 농민 대출에 대한 제3자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협회에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협회 보증을 받거나, 대출과 보험상품을 결합해 채무불이행 시에는 보험으로 채권자 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의 휴대폰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채권관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외부기관 출자는 점차 줄이고, 농민 개인의 예금·출자분을 확대하여 상호금융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농업협력사업과 금융협력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북한의 농업이 재건되고, 농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는 등 여건 성숙 시, 본격적인 상호금융제도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상호금융을 도입했을 당시, 이동조합 합병을 통한 규모 적정화가 중요한 이슈였으므로, 상호금융 모델 전환 시 사업단위 적정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북한의 경우, 구역 당 농민 수와 농가 소득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행정구역만을 감안하면 4개의 리 단위 협동농장을 1개의 상호금융 구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상호금융 모델로의 전환을 염두에 둘 경우, 초기 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 범위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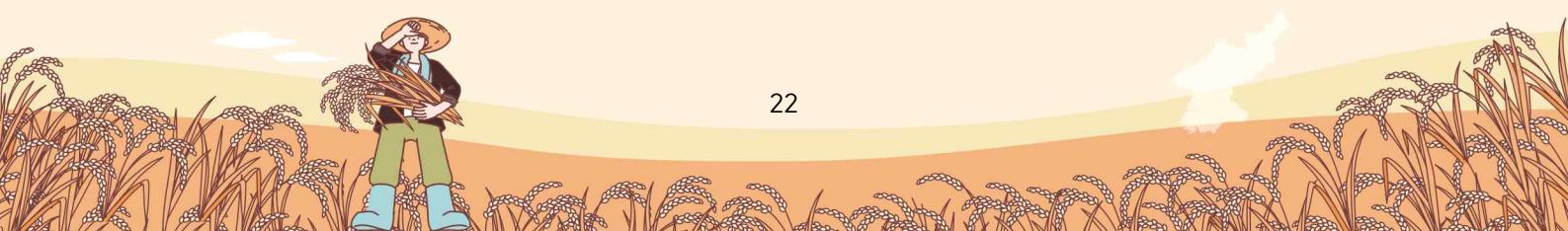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남한의 생산자 협동단체 유통기구 모델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판장은 생산자 협동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이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생산물을 도매 거래하기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생산자 단체 공판장이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본격 수행하였습니다. 공판장은 농민들의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교섭력 열위에 대응, 수급조절, 유통비용 절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국영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양자 사이의 공통점에 착안한다면 북한이 수용 가능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국영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도 농민시장을 통한 개인 거래와 단독 또는 연합의 협동농장직매점을 허용하고 시기별·등급별 수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본적인 농업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은 당초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남한의 생산자단체 유통기구 모델을 적용하는 기본단위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련 모델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과 농산물 유통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구상해 볼 수 있는 향후 남북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농업> 네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남북농업협력방안 구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4

Agricultural Finance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n North Korea

4-1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1

Hello everyone! My name is Sungnam Kim, and I am responsible for the lecture on "Agriculture in North Korea." This is the fourth lecture and I'm going to talk about agricultural finance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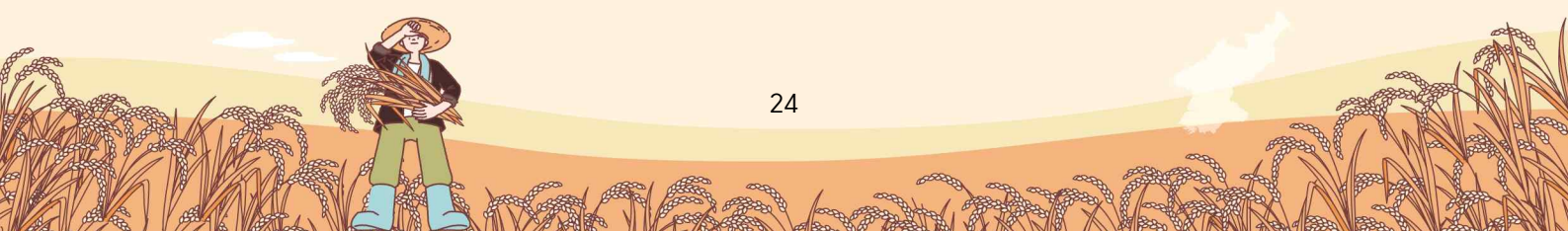
In this class, we're going to take a closer look at agriculture in terms of finance and distribution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gres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finance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Finance, simply put, refers to the raising of funds, and agricultural finance is the raising of funds necessary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you can see that the development of finance has had a profound impact.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economic agents may consume less than they earn and have some funds left over, or in some cases they may need more funds because they have to consume more than they earn, and it is the role of finance or financial markets to link this supply of funds with the demand for funds.

Even within the same economic agent, depending on production methods, there may be a surplus of funds at some times and a shortage at other times. It is also the role of finance to adjust the temporal discrepancy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of funds.

When it comes to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year-round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the harvest season, and income is also generated only at a specific time, however, during the crop growing season, the inputs of labor or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fertilizer are required continuously, resulting in a steady demand for funds. Therefore, agricultural finance is treat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e as well.



Whereas finance is the raising of funds, distribution is the movement of products themselves. In terms of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areas that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there is a surplus of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self-consumed and left over, while in areas that do not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without a distribution process, even basic subsistence would be impossible.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role of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o reconcile this spatial imbalance. Likewise,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shows that distribution, i.e. logistics movement between regions,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market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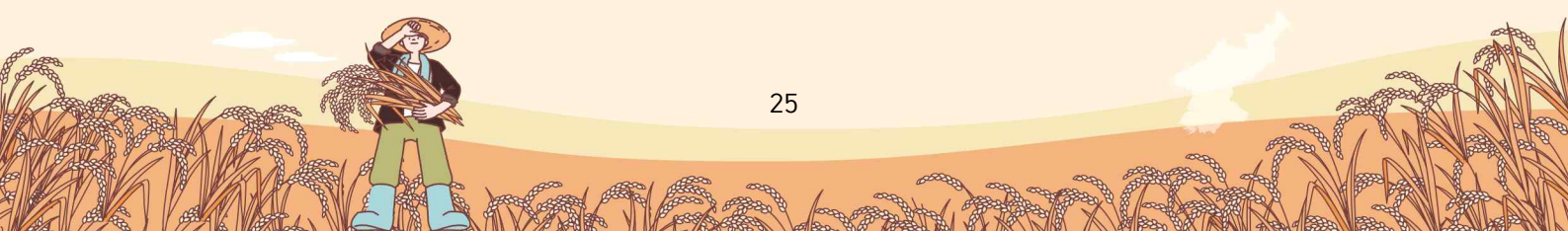
To sum up, I think that this lecture will give you a dee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f you evaluate the progres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s an industry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agricultural finance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s economy has maintained a socialist plan since the country's founding to the present day, and with the country's total crop production falling short of demand and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limited each year due to a lack of foreign currency, the country faces chronic food shortages. Given the weak capacity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itself, and the maintenance of a planned economy rather than a market economy, one might wonder whether agricultural finance actually exists in North Korea.

To conclude, North Korea has recently shown efforts to develop a commercial banking system 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s a policy, but only in terms of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ole of finance is known to be insignificant. However, if you look at the early days of the country's founding, you can see quite different images.

In 1976,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made the following remarks in a speech to workers of the Party and economic institutions.

"When people from other countries come to us and ask about our experience in even rural financial business that our country implemented, we cannot explain it in a coherent way. That is why I recently assigned a task to some workers in the relevant sector to write a book about our experience in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Farmers'Bank in the past."



It is an instruction to organize the experience of setting up and operating the Farmers' Bank with a view to transferring specific know-how even to other countries. In fact, a booklet titled "Instructions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sung on the Rural Financial Business" was published that year, which gives a relatively detailed account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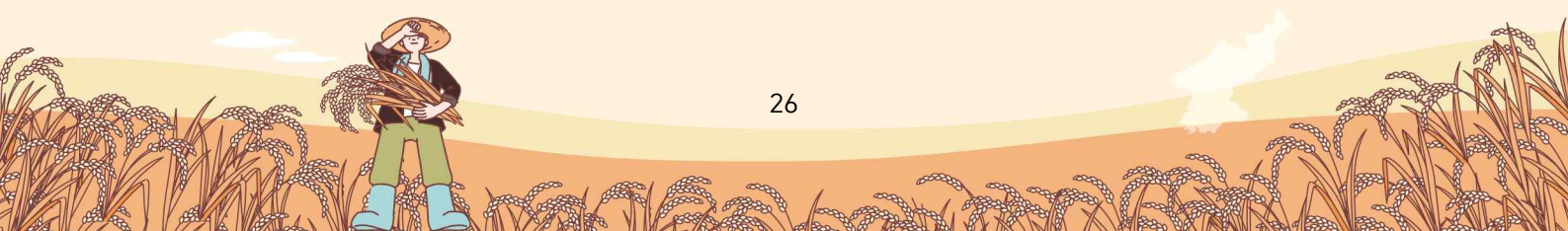
North Korea's Farmers' Bank was established in 1946, a year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A decade later, in 1946, South Korea officially launched the Agricultural Bank as an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 suggesting that North Korea had shown great interest in agricultural finance from a very early stage.

If we look at why North Korea was in such a hurry to establish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we can see that it had to do with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and, by extension,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right political forces in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issue of government formation, which was also the backdrop to the land reform.

Kim Il-sung and the communist forces quickly implemented the land reform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under Soviet military rule, in order to gain the upper han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government. The most pressing issu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was the problem of dismantling of the landlord system through the land reform.

A landowner literally refers to the owner of the land, and in the landlord system a landowner does not simply mean the owner of the land, but adds the perspective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refers to such absentee landowners in a situation where most of the farmland is occupied by people who own the land but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farmers who actually carry out agricultural management are tenant farmers who do not own the land.

This landlord system developed after the late Joseon period, and was further strengthe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landowners, especially those who owned farmland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nd leased their land for tenant farming or rented it out to actual cultivators, became key partners in the coloni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fter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30s, there were some policy efforts to alleviate the landlord system, but they were not enough to fundamentally change the ownership structure of farmland, and so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re were arguments from both the left and right camps that this landlord system needed to be fundamentally abo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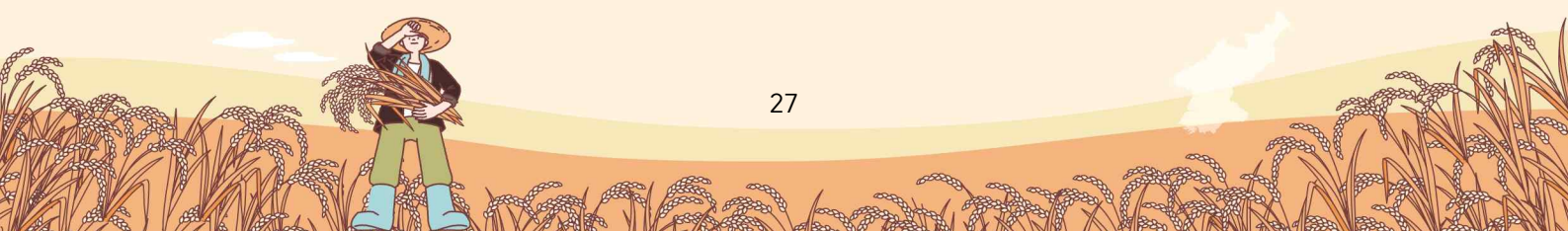
For your reference,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landlord system in figures, in 1914, 52% of the total farmla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was tenant land, and in terms of land category, tenant land accounted for 65.3% of highly profitable rice paddies and 44.2% of fields with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small-scale cultivation for self-consumption. Then, through the colonial period, as of 1944, 62% of the total farmland—divided into rice fields and fields—and 72.6% of rice paddies and 54.6% of the remaining fields were cultivated by tenant farmers.

In this situation, there was no disagreement about the need for land reform to dismantle the landlord system, but arguments were divided over about how this should be done.

In order to abolish the landlord system, the existing absentee landowners would have to transfer their ownership of the farmland to the farmers who actually own the land, and in this regard, different options were propos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faction, such as whether the land of the landowners should be purchased by the government for a fee or confiscated for free, and whether the land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farmers for free or for a fee, and if so, how much and in what way, for example, what the repayment period should be.

In the North Korean region as well,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depending on the faction, but at some point, the plan of free confiscation and free distribution proposed by Kim Il-sung quickly emerged. The land reform proposal containing the above plan was finalized by the Bolshevik Central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was notified to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which officially promulgated the Land Reform Law in March 1946.

In the case of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at lasted until 1948, only farmland previously owned by Japanese was distributed for a fee and the land reform for all tenant land was not possible until 1950, whereas in North Korea such work was done quite quickly.



The background behind North Korea's rapid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found in the sweeping land reform that took place less than a year after liberation. In April 1946, one month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Land Reform Law, Kim Il-sung delivered a speech to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in which he emphasized the need to consolidate the achievements of the land reform by guaranteeing farmers' farming businesses through the support of agricultural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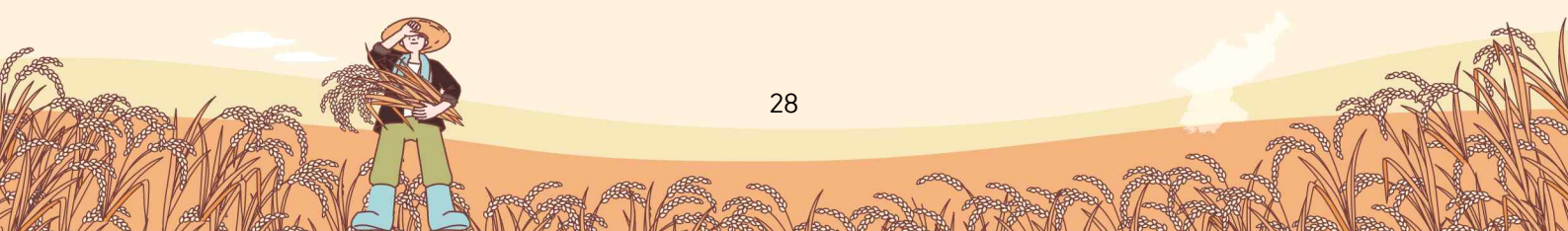
"We are now carrying out land reform." "When the land reform is over, all the farmers who plow the fields will become the owners of the land. If that is the case, the task ahead of us is to help the farmers in various ways to do a good job in farming business, and fulfilling this task is of great significance in consolidating and enhancing the achievements of the land reform."

"It would be a good idea to set up a bank that specializes in lending to farmers." We should make the Farmers' Bank a cooperative credit institution for farmers by encouraging farmers to make their due contributions. "We have taken over the financial cooperatives organiz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in the past to plunder the rural areas of our country, and we should also use their assets as a foundation for organizing the Farmers' Bank."

As stated in Kim Il-sung's speech, while advocating for a cooperative credit institution, North Korea established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after taking over the assets of colonial financial cooperatives and issuing stock certificates to farmers as a means to raise capit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The details of the bank's establishment can be foun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enacted in April 1946.

Article 5. Each financial cooperative and each provincial branch of the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 in North Korea shall appraise all their possessions, including buildings and fixtures belonging to them, at a fair value and contribute the remaining cash, along with the evaluated value, to the Farmers' Bank.

Article 6. Each financial cooperative and each provincial branch of the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 shall transfer all outstanding loans, excluding those that have been frozen as of May 1, to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outstanding loans that are at risk of incurring losses.





As mentioned earli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came much later, there may be questions about the role of the financial cooperatives that were in charge of colonial agricultural finance. For your reference, after liberation, the financial cooperatives in South Korea changed their name to the Korea Financial Cooperative and started operating under that name.

However, it is known that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focused on carrying out various government policy projects such as supplying fertilize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t was not able to properly perform its original business of supplying credit in rural areas, resulting in a situation where agricultural finance was shr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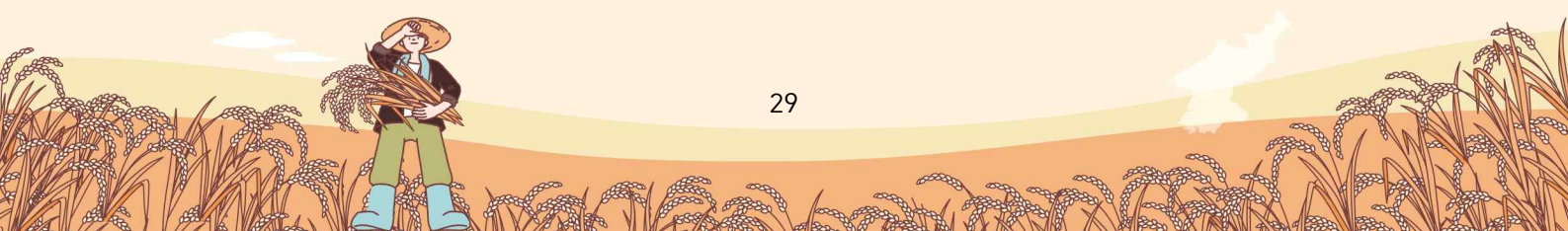
It is said that when North Korea established its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 namely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it acquired the assets of financial cooperatives, while issuing stock certificates to farmers and since the record is now kept in the Securities Museum, I'm going to talk about it. It is a certificate proving that a farmer named Seo Rye-soo paid 200 won in March 1946, and became a shareholder of two stock certificates of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which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July of the same year. In this regar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Farmers' Bank also stipulates the following:

Article 4. Each farmer residing in North Korea must make the due contributions in this bank, and non-farmers may also make contributions.

As a result, 93% of all farmers in North Korea contributed to the bank, and it is said that half of the bank's capital was raised from farmers.

In addition to the country's agricultural development financing,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handled individual loans for farmers with importance, thereby offering agricultural funds, housing funds, and living expenses loans. However, records of its early operations suggest that these efforts were not very successful. In 1948, for example, Kim Il-sung visited the Farmers' Bank and issued the following reprimand.

"Are you offering loans? Who are the main recipients of loans? It would be better to refrain from offering loans to merchants and manufactur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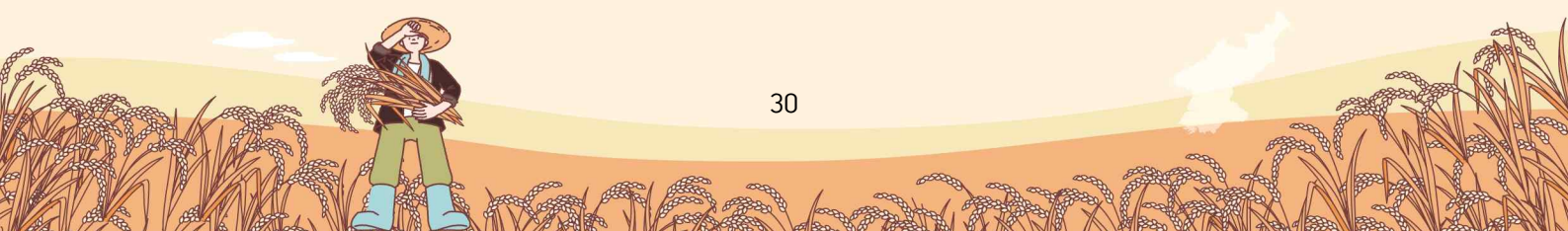


Reflecting such reprimand, the measures were discussed to strengthen lending for farmers, such as livestock loans for non-livestock farms the following year, which is also confirmed by the data, but based on the subsequent developments, it seems that the plan was not quite successful.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arly days of North Korea's founda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when the left and right factions were at loggerheads over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 North Korea took a more preemptive approach to land reform than South Korea, while quickly transforming the colonial financial cooperatives into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in order to secure farmers as a political support base.

The key point is that the move was intended to strengthe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 and gain the support of farmers by strengthening loans for them, but it did not proceed as originally intended. In the meantime,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causing significant human and material damage to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search for a new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 began in the early 1950s.

In this lesson, we have looked at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Next time, we'll look at how agricultural finance was developed in the country.



4-2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2

Hello everyone! Last time, we looked at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In this lesson we're going to continue to talk abo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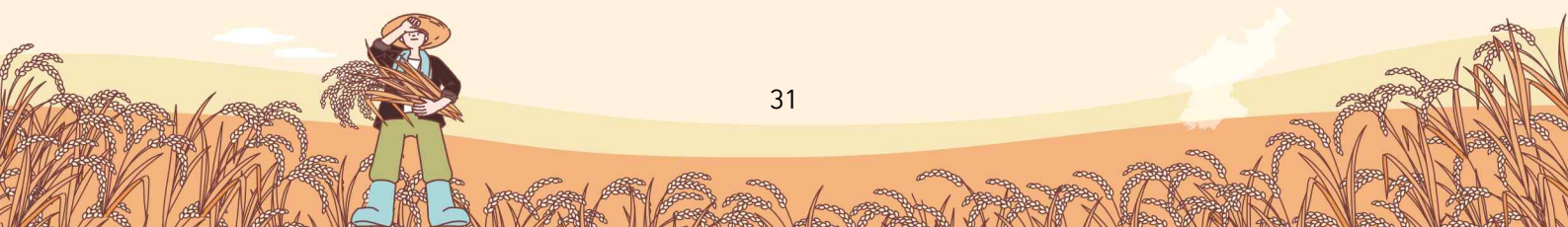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the 1950s, also destroyed much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It is said that in the period between May and June 1953, prior to the armistice, the U.S. Air Force heavily bombed reservoirs in North and South Pyongan Province, major rice-producing areas in North Korea. The human losses arising from the war led to the loss of agricultural labor forces. As a result, the reconstr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also became an important task in North Korea after the armistice, and to this end,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Farmers' Bank became more prominent.

However, just like before the Korean War, the Farmers' Bank continued to focus only on profitable institutional loans and still remained passive towards loans for farmers, and accordingly, criticisms against the Farmers' Bank began to emerge in earnest. In 1952, a survey found that 60% of the Farmers' Bank's total loans were to institutions, prompting Kim Il-sung to order that all institutional loans be transferred to the central bank.

"The Farmers' Bank should specialize in providing loans to farmers. The loan business for stat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all handed over to the central bank, and the Farmers' Bank should specialize in serving rural areas."

The intention was that business related to institutions should be exclusively handled by the central bank and the Farmers' Bank should concentrate on loans for farmers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of establishment. Even in terms of deposit mobilization, not loans, the performance of the Farmers' Bank was also found to be unsatisfactory.

It was found that the plan to absorb surplus funds from rural areas into the Farmers' Bank was only able to achieve 20% of the original target. This is because when the Farmers' Bank was established, its purpose was to be a self-sustaining financial institution that could raise funds from the rural economy on its own, such as raising funds through direct capital contributions from farmers, but this purpose ended up in a failure.



In the face of this growing criticism against the Farmers' Bank, a policy was implemented in 1957 to establish a new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 The idea was to create credit cooperatives at the rural level.

In this regard, it is also worth looking at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that was in progress at the time. From 1953 on, North Korea vigorously pushed for the form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t the level of natural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primary purpose was to increase productivity by organizing farmers as the issue of agricultural expansion emerged as a pending issue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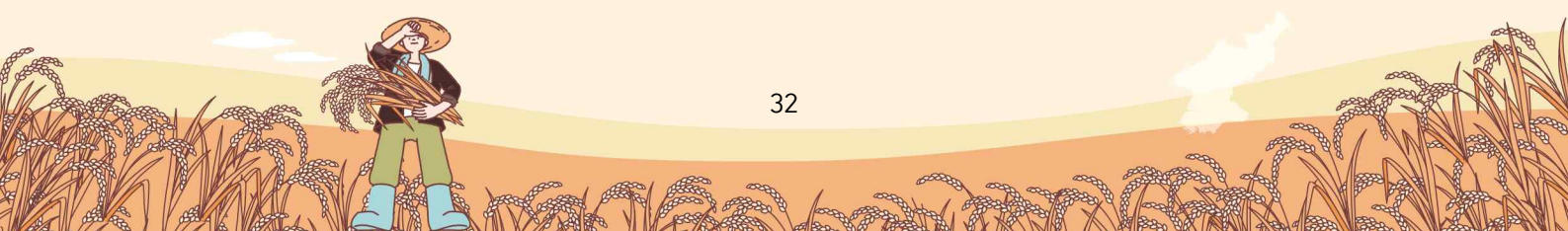
In today's terms, it seems to be a kind of sharing economy. Each farm is economically small and does not have enough farming cattle or farm equipment, but by organizing farmers into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having them share and use the scarce farming cattle or farm tools and equipment, the problem of capital goods shortage can be re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agriculture requires intensive labor input at a specific time due to the production method, but this problem can also be resolved through collective labor within the framework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fact, these collective labor practices, known as sogyeori (production communities where cows and humans work together) or pumasi (communal sharing of labor), have existed since traditional times, and it is said that the authorities systemically encouraged and organized them during the Korean War when agricultural supplies became scarce.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to organize farmers into agricultural cooperatives can be said to institutionalize collective labor practices that have existed since the traditional times.

While it was primarily aimed at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it was also ultimately intended to complete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ended up organizing all farmers into cooperatives within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While talking about credit cooperatives earlier, I explaine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an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is way, credit cooperatives were also promoted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systematic organizational movement at the grassroots level.



With the creation of credit cooperatives, all contributions from farmers who had previously invested in the Farmers' Bank were transferred to credit cooperatives. Credit cooperatives were set up at the level of Ri (an administrative unit), and each farmer transferred their investment in the existing Farmers' Bank to a newly established credit cooperative in Ri where they lived. As a result of these measures, lending to individual farmers has now become the exclusive business of credit coope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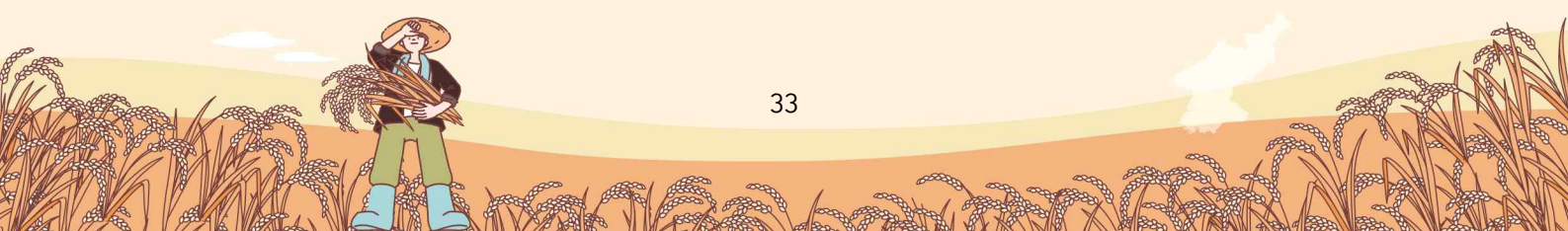
Through North Korean data, we can see how credit cooperatives were operated at the time. The existing Farmers' Bank was transformed into an institutional lender for agriculture, with county branches of the Farmers' Bank supporting the practical work of credit cooperatives.

In addition, credit cooperatives organized at the level of Ri received guidance from the People's Committees of the county, an upper-level administrative body that reportedly operated a management committee and an auditing committee, required the committees to hold a financial reporting competition on a quarterly basis, and frequently inspected budget execution.

Loans from credit cooperatives are said to have been used not only for agricultural purposes, such as buying livestock, but also for emergency living expenses, such as preparing for winter and paying for children's education, and the details of these successful cases can be found in documents published in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s credit cooperatives only operated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efore fading into history. I mentioned earlier that credit cooperatives began to form in 1957, but by the end of 1958, with the comple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aimed at organiz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steps were taken to integrate credit cooperatives into agricultural cooperatives.

At the time, agricultural cooperatives were organized at the village level, while both credit and consumer cooperatives operated at the level of Ri, which is a larger unit than villages. This means that all these individual cooperatives will be integrated into agricultural cooperatives at the level of Ri.



As a result, functions that were previously operated separately, such as collective production, credit business, and the operation of village stores, will all be carried out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at the Ri level. Specifically, the credit business was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called credit departments under agricultural coope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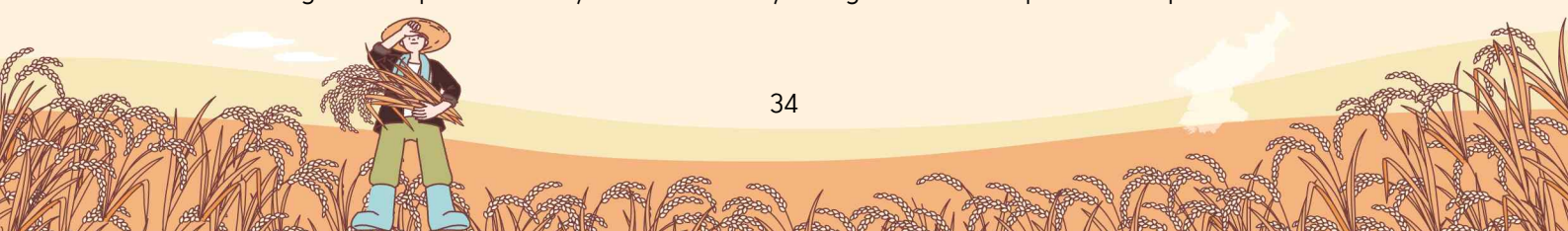
Th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were launched after being integrated into the Ri level in this way, were renamed cooperative farms in 1962 and continue to exist to this day. It can be said that cooperative farms, which are currently the lowest-level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North Korea, were created through this process in the 1950s.

Specific examples of credit departments under agricultural cooperatives can also be found in documents from North Korea. There are also cases where sub-organizations called credit groups, which were established under agricultural cooperatives, set savings targets for each credit group to induce competition among them, which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savings. In another areas, there are examples of successfully operating the credit business by organically comb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functions with financial functions, such as prepaying product reservation fees and using them for loan repay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recovery rate of loans.

However, as I mentioned earli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was to complete the socialistic transform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refore once it was completed, it became easier to introduce planned economic elements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Farmers' Bank, which handled institutional loan business, was renamed the Korea Agricultural Bank at this time, but it was absorbed into the Korea Central Bank as the need for such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diminished. With the deepening of the planned economy,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were also required to procure materials from other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lan, produce the output allocated under the plan, and deliver them to designated institutions, thus eliminating the need for finance.

Currency simply acted as a medium for transactions designated by the state, and the Central Bank only needed to provide the minimum amount of currency necessary to settle pay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function of finance is to reconcile the imbalance of funds between economic agents and the temporal mismatch of fund procurement, and this reconciling role is performed by the elaborately designed national production plan.



As credit departments of cooperatives, which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loans for individual farmers, were also no longer need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remained only a nominal organization after the 1960s although this is not confirmed by specific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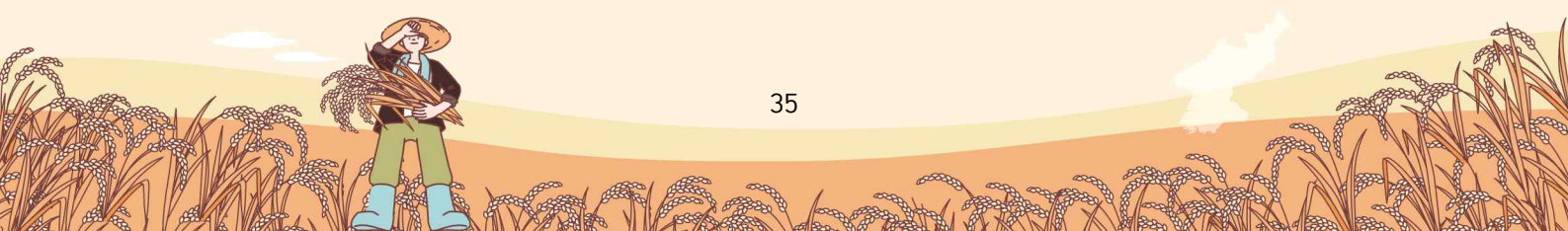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farmers, the need to raise funds outside the process of agricultural production was eliminated because all they had to do was to accept purchases, which refer to the production and delivery of agricultural products after being supplied with agricultural materials and other necessities by the state. In addition, daily necessities were rationed, and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were also provided by the state under the planned economy, which almost eliminated the need for loans for living expenses as well.

Beginning in the late 1980s, North Korea faced a severe economic crisis, also known as the March of Suffering. As foreign trade collapsed in the aftermath of the breakdown of the socialist bloc, the accumulated evils of the planned economy came to the surface. It is known that the supply of agricultural materials gradually decreased and was cut off completely by the mid-1990s.

However, since the production obligations under the state plan, which had been imposed on cooperative farms as agricultural production units, still remained the same, informal markets began to emerge at the private level. Informal markets were filling the void in the plan. Farmers coped with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materials by secretly selling the products of cooperative farms to informal markets and purchasing the materials from these markets using the funds they secured in this way.

The institutions producing agricultural materials also secretly sold the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o these markets instead of delivering them to the country because they needed funds to procure raw materials. As markets began to operate, the need for finance naturally aros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unofficial financial markets.

During the March of Suffering in the 1990s, an emerging power called donju (North Korean new rich owing a lot of money) accumulated their wealth through the smuggling trade with China, and through them or powerful party officials, informal financial markets developed. Cooperative farms were also able to continue agricultural production while relying on these informal financial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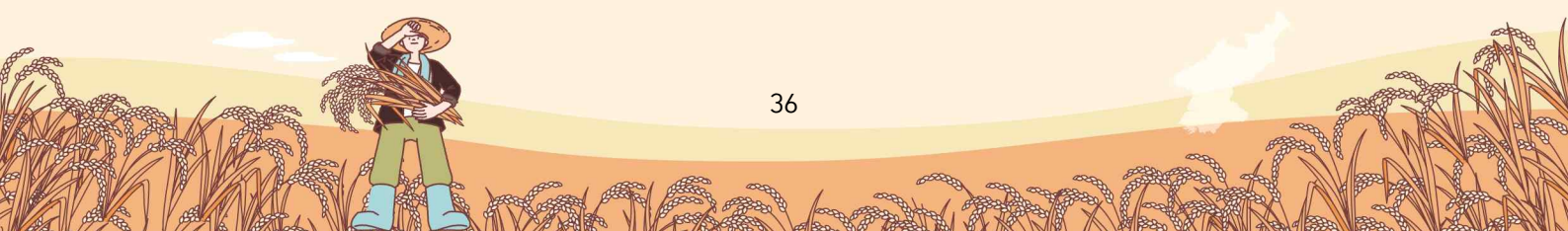
It is known that individual farmers who have limited access to such informal finance mainly use the method of grain usury. For example, if they run out of food during the spring lean season, they borrow food from wealthy households, promising to repay it with their autumn harvest.

However, according to recent survey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personal experience of using such financial markets at the level of individual farmers, including grain usury, is not very high. It was generally found that about one out of five North Koreans had experience using financial markets,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financial markets are usually used at the level of cooperative farms because agricultural production is jointly carried out by cooperative farm units.

If agricultural sector reform in North Korea progresses further and individual farmers are able to secure more autonomy as producers, it can be expected that individual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rkets will increase further.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market at the level of farmers, they need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spending, and they also need finance to sell their crops at favorable times when market prices are high.

Therefore, I believe that increasing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agricultural finance sector will be a very promising item for cooperation, as North Korea's marketization progresses.

In this lecture, we looked at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Next time, we'll look at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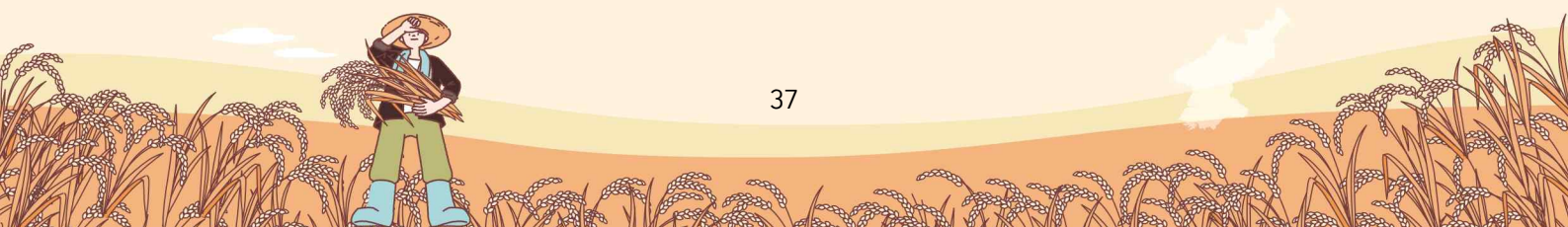
4-3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Hello everyone! Last time, we looked at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finance in North Korea. Today, we're going to look at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Korea.

Along with finance, distribution i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of market development in that it primarily adjusts the spatial mismatch of supply and demand of goods. I think that by understanding how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has evolved, you will be abl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economy.

Before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ountry's traditional state-run commercial system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traditional state-run commerce is characterized as a system in which the demand for goods at the end of the chain is identified through the "ordering system" of the state-run commerce network, which is then reflected in the national production plan to produce products, and the products are supplied again through the state-run commerce network. Article 11 of the Socialist Commercial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mphasizes this ordering system as the principle of supplying goods. The supply of goods is based on the ordering system. Central commercial guidance institutions, lo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guidance institutions, commerci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hall conduct research on people's demands and draw up product order forms; national planning institutions shall draw up and send produc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upply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order forms; and product producing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hall produce and supply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lan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fully produce and supply after thoroughly identifying the needs of individuals in order to establish an economic plan. The core of the state-run commercial system of "thorough identification of demand and supply" can also be found in the provision of "Our Household Notebook," which is specified in Article 68 of the Socialist Commercial Law of North Korea. Commercial workers are the people's faithful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eople's livelihood. Commercial workers shall emulate the experience gained by using "Our Family Handbook" in the control of the demand and supply of goods, provide the residents with necessary goods, and always serve the people in a culturally friendly m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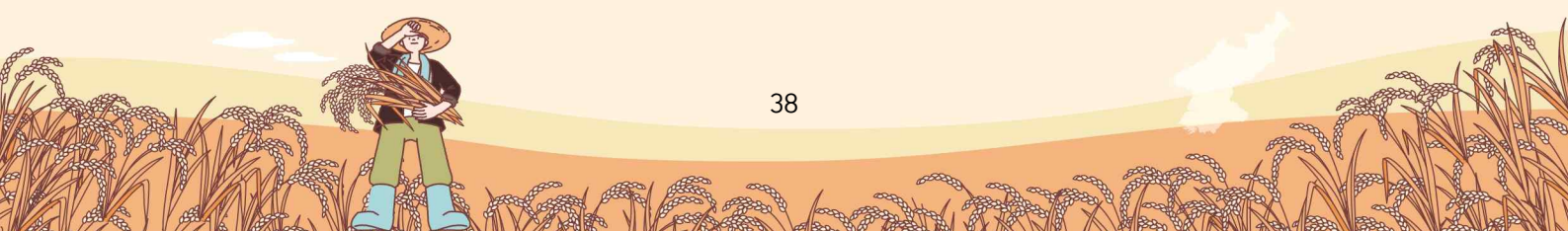
Here, "Our Household Notebook" refers to the method actually used by Jung Chun-sil, who was the director of the commercial management office in Jeoncheon-gun, Jagang-do, to identify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specifically, Jung Chun-sil recorded residents' clothing measurements, shoe sizes, wedding and 60th birthday dates, household events, and other information in "Our Household Notebook," and used it to secure and supply the goods that residents needed in a timely manner.

In 1964, while conducting his on-the-spot guidance of the Jagang-do area, Kim Il-sung highly praised "Our Household Notebook" created and used by Jung Chun-sil as the sprout of communist commerce and an excellent method for researching demands, and supplying socialist products, which was later regarded as an exemplary case of socialist commercial and was stipulated as a legal provi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ocialist Commerce Law in 1992.

According to testimony from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time when the planned economy was working well, even household items such as toothpaste, which individuals needed, were rationed after a survey of how many are need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the production and supply method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demands was applied only to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grains. For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a national mandatory purchase plan was drawn up and planned purchases were made from cooperative farms, while for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 free purchase method through state-run commercial institutions was adopted.

This difference can be understood as stemming from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terms of production methods between manufacturing, which allows for planned production, and agriculture, which is heavily influenced by natural conditions. The booklet "Experience in Realizing Economic Linkag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ublished in North Korea in 1989, provides a more detailed look at the state-run agricultural distribution and purchasing system.



This booklet was published just before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when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began to be meaningless, and it seems to be a good description of North Korea's traditional state-run commercial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is booklet, we're going to look at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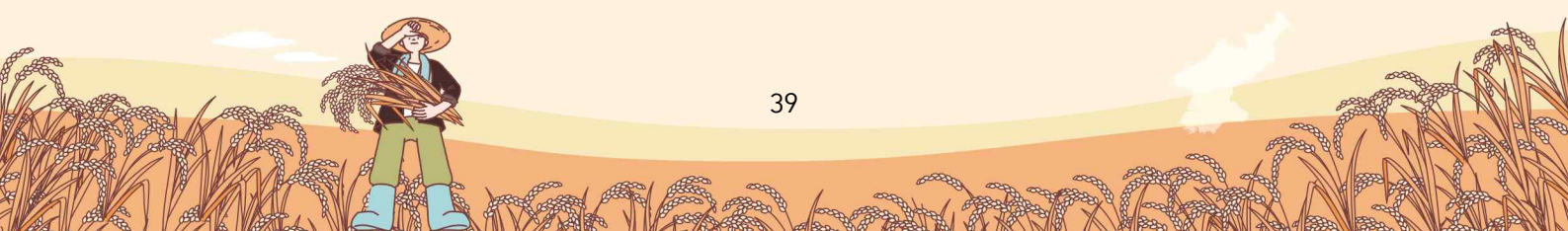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at the time of liberation in 1945 was extremely small, and individual merchants engaged in excessive profiteering, making it urgent for the state to intervene, thus raising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commer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valuated colonial commerce as having "most of the commercial facilities being very backward and small, and even they we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with very few shops in rural areas," and criticized rural commerce, in particular, saying that "individual merchants ... engaged in profiteering activities such as buying agricultural products at low prices, bringing them to urban areas and selling them at high prices to make huge profits."

With this awaren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roclaimed that they would create state-run and cooperative commerce to "liquidate the colonial commercial system inherited from the Japanese and prevent speculation and profiteering activities by individual merchants."

In the early stages, consumer cooperatives were organized in rural areas to play a role in supplying consumer goods to rural areas and pioneering markets for agricultural products, but after 1964, they were reorganized into state-run commercial system, and the share of socialist commerce, including consumer cooperatives, in the category of consumer goods reached only 3.5% in 1946, but expanded significantly to 56.5% in 1949.

In 1959, the functions of consumer cooperatives were transferred to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by 1964, the distribution business of cooperative farms was absorbed by state-run commercial institutions. Individual commerce was initially allowed as a supplement to socialist commerce, but from 1958 on, measures were taken to completely ba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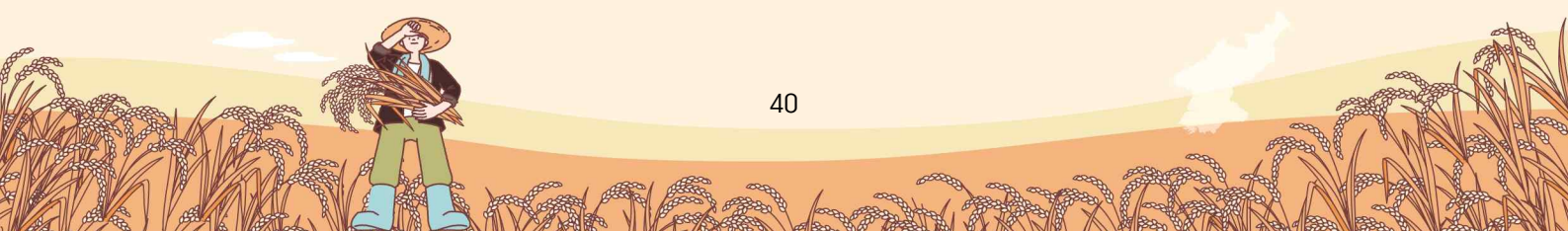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run commerce system for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principle was to conduct planned purchases for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grain and free purchases for other agricultural products. Planned purchase refers to the system in which national purchasing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farms are given a national mandatory purchasing plan for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grain, and purchasing offices make the purchases and distribute them through food supply centers.

Free purchase refers to the practice whereby purchasing stores are allowed to freely purchase food, agricultural by-products, and home garden sideline products, other than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se goods are sold to consumers through state-run stores or to producing institutions through contract sales. In addition to post-harvest purchases, contract purchase method was also used, where producers and buyers are contractually agree on specific varieties, quantities, specifications, and prices in advance of the harvest season.

In urban areas, for example, supply contracts were signed between state-run fruit and vegetable stores and cooperative farms, with quantities and prices set according to variety and time of year, and in urban and industrial areas, measures were taken to secure surrounding rural areas as "good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bases" to ensure a smooth supply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needed by residents.

In addition, exchange purchase method was used not only for cash purchases, but for the supply of industrial products to rural areas. Exchange purchase refers to a bartering system in which farmers exchange agricultural products for industrial goods they need during the harvest season, and for this purpose, it is said that after the harvest, industrial goods such as TV sets, sewing machines, bicycles, and furniture were intensively supplied to rural areas in time for the distribution of settlements of corporate farms.



In addition, various efforts were also made to absorb as much of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s possible into the state-run commercial sector by applying different methods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personnel responsible for purchasing, including the on-site and mobile purchasing method in which “purchasing workers” directly visit to production sites to make purchases; the consignment purchasing method in which a consignment purchasing network is organized by rural natural community units and selected consignment purchasing agents make purchases; and the consignment purchasing method in which state-run stores purchase products brought by farmers to farmers' markets for sal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traditional state-run enterprise system has a “single price” principle for goods, but a more flexible principle is applied to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case of industrial goods, a single price was set to ensure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tandard of living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ile in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vegetables and fruit, purchasing prices were allowed to be more actively applied depending on the timing and grad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measures were taken to supplement state-run commerce by allowing market sales through farmers' markets in addition to the state-run commerce system. Farmers' markets, a regular market opened on the days when cooperative farms were closed, allowed farmers to sell surplus consumer agricultural products and sideline products from their home gardens, while cooperative farms also sold agricultural products other than planned purchases through direct sales stores of cooperative farms, either alone or in association; however, the sale of industrial products by individuals, except for farmers' handicrafts, was strictly prohibited in these farmers' markets, and industrial products could only be sold in state-run stores.

In principle, transaction prices at farmers' markets were allowed to be determined naturally by supply and demand, but state-run stores were set up within farmers' markets to compete in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thereby controlling market prices through the state-run commerce system.

What is noteworthy about these farmers' market policies is that they emphasize the state-run commerce system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ing use some of the functions of the market. It is worth noting that even under the traditional state-owned commerce system, North Korea perceived the market as system-neutral and regarded it as something to be well controlled and utilized.

Evaluating that the market did not emerge under either the socialist or capitalist system, North Korea deemed the market as “a backward form of commerce that arose from the development of handicrafts in feudal society” and allowed transactions through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hile recognizing the transitional limits of state-run comme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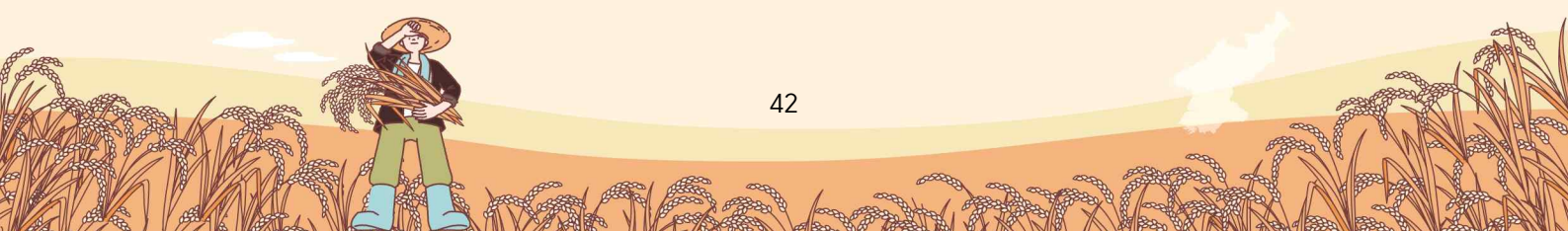
North Korea sets out the principle that it is necessary to be vigilant against all “biases such as trying to eliminate farmers' markets by administrative methods, ignoring the transitional nature of socialist society, or conversely recklessly expanding and operating farmers' markets.”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is state-run commerce system appears to have functioned to some extent.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a North Korean defector,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s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even cooperative farms were interested in supplying non-grain crops to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t the state-set price, indicating that the system worked relatively well.

For your reference, North Korea changed the name of existing farmers' markets to “markets” in 2013 and implemented market expansion measures aimed at expanding allowable items for sale. This measure made it possible for state-run enterprises to sell industrial products directly and for imported products to be sold, which had not previously been allow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t is difficult to see significant difference, at least in principle, since transactions through farmers' markets and contract purchases were already permitted before, and the only difference is that market sal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as officially allowed.

However,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North Korea's state-run commerce system began to be meaningless, and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official state-run commercial network decreased greatly. With the weakening of the state purchasing func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phenomenon of “illegal”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to private merchants operating informally became wide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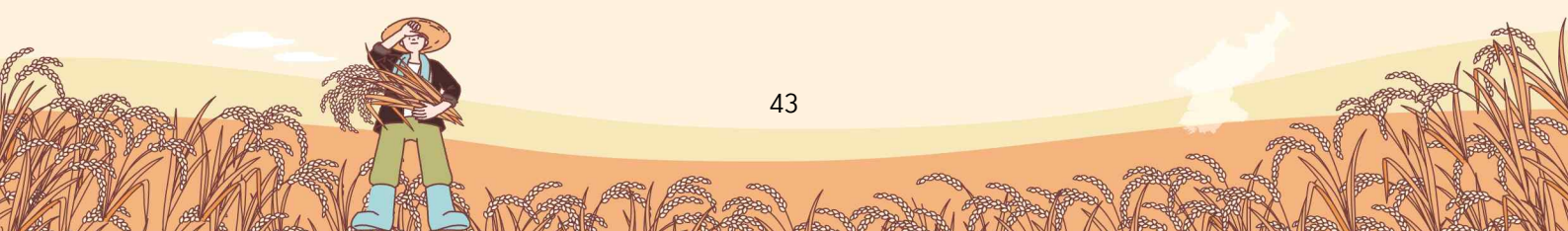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 the case of rice, for example, merchants in urban areas, known as grain harvesters in North Korea, went around farmers' markets in nearby rural areas to buy rice and then rented apartment warehouses to store and sell it wholesale and retail, while some large grain wholesalers used the warehouses of institutions, such as farming institutions and military units.

Similar to rice, for food crops such as maize and potatoes, private merchants are said to travel around rural areas to buy rice from cooperative farms and sell it in urban markets. In the case of vegetables, they are often grown in private gardens, which are also bought by merchants who travel from garden to garden. However, unlike food crops, vegetables tend to be sold in local markets because they cannot be stored for long periods of time and spoil quickly.

To sum up, if we look at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we can see that individual commerce was suppressed while distribution was mainly through the state-run commercial network, but during a time when the state-run commerce was working well, it was possible to use the markets, namely the farmers' markets, which were relatively flexible for industrial products. Then, as the state-run commerce network collapsed completely after the 1990s, informal markets at the private level developed and continue to this day.

North Korea's recent commercial policies suggest a move towards restoring the state-run commerce network of the past, but under the limited foreign trade of the present, I think that their limitations would be evident. If North Korea's marketization progress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operate in institutionalizing the overal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its past experience with the operation of the farmers' markets.

In this class, we looked at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Next time, we'll look at how South and North Korea can work together in the future.



4-4 Ways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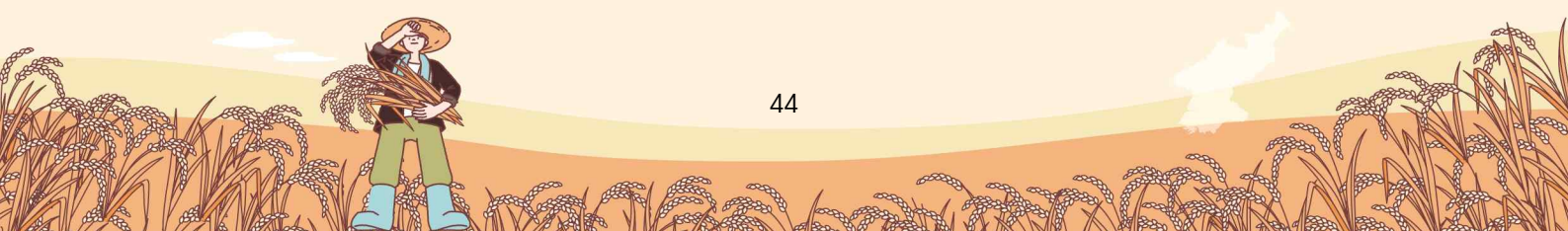
Hello everyone! Last time, we looked at the progress of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Today, as the last part of this lecture, I will conclude by suggesting some ideas on how to cooperate in the future when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deepens and South Korea seeks to contribute to facilitating North Korea's marketiza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ently introduced the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 to expand the management autonomy of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and the demand for finance from the private sector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arm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Farmland Responsibility System is expanding the management autonomy of cooperative farms and farmhouses,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demand for finance.

In response to this growing demand for finan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lso making institutional supplem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anks, but the situation is still inadequate. Du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caused by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is unclear whether commercial banks will be able to secure sufficient deposits and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lend to cooperative farms. Rural areas, in particular, are located in a blind spot of financial benefits because they are less developed than the North Korea-China border areas and urban areas, even in terms of unofficial finance.

North Korea's past experience in preemptively building agricultural finance systems suggests that it may seek to rebuild such systems in the future if economic conditions improve, and reforms and opening up take place. In the past, North Korea even published a booklet to promote the examples of its advanced agricultural finance systems abroad.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ently carried out a series of financial system reform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anks, Kim Il-sung's "instructions,"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banks as fund-raising institutions are also in the spotlight again. Therefore, i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re pursued in earnes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m in conjunction with financial cooperation and devis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expected to have a strong interest in rebuilding the agricultural finance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project proposal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 projects and increase the ability of North Korean farmers to become self-relian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ile it is necessary to further elaborate the business model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 of the business can be derived from the overall review of relevant precedents.

First, a joint fund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o raise and manage the fund through joint investment. The target of the joint venture could be the central bank of North Korea or commercial banks established at the provincial level. In addition, for future lending to individual farmers,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reviving the credit departments of corporate farms, which currently only exist in name, to use them as front-line financial outlets.

Second, it is necessary to link loan programs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on. Rather than providing livestock such as piglets and baby goats or other investment asset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ry free of charge, concessional loans from the fund could be used to encourage farmers to buy them in installments. It is important to repayment performance to the availability of additional loans to prevent the wasteful use of loans for consumption purposes and to provide incentives to use them efficiently for production activities.

In addition, since these idea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ivestock or agricultural machinery are supplied smoothly to the market, it can be said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o ensure their production and supply within North Korea.

Third, in the early stag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loan programs only for cooperative farms. In the past, there was a pilot microfinance program for rural areas in North Korea, which was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called IFAD, and referring to such cases, it can be said that if individual loans are made without verifying farmers' management capabilities, the original project goal of promoting agricultural production may not be fully achieved. In addition, if a large number of farmers' loans are delayed in repayment and defaulted on, it may serve as a factor that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Fourth, after a loan program for cooperative farms pays off,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gram to individual farmers by devising th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claims. Currently,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private ownership of anything other than personal consumption goods, so without the country's drastic institutional reform,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security will be inevitable for the time being.

For your reference, China which does not recognize private land ownership by farmers like North Korea, once used the "five-person joint collateral" method when setting up rural financial institutions. It may also be possible to establish a joint guarantee and insurance organiz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provide third-party guarantees for loans to farmers.

In China, borrowers paid a deposit equivalent to 25% of the loan amount to a association in order to receive a guarantee from the association, or used a method of combining a loan with an insurance product to compensate creditors through insurance in the event of default. On the other hand, given the high usage rate of mobile phones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debt management plan using IT technology.

Fifth,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mutual finance model by gradually reducing the share of external institutional investment and increasing that of farmers' deposits and investments. Through the effective linkage between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and financial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ull-fledged mutual finance system when North Korea's agriculture is reconstructed and conditions mature as farmers' income levels improve.

When South Korea introduced mutual finance in the past, scale optimization through mergers of mobile cooperatives was an important issue, and similarly when switching to a mutual finance model,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judgments about the appropriate scale of business units, and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number of farmers and farm income per district should be specifically considered, but considering only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it seems reasonable to group four ri-level cooperatives into one mutual finance district. Therefore, when considering switching to a mutual finance mode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the scope of business targets from the initial stage of establishing fund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t seems that we can refer to the South Korean model of producer cooperative distribution organizations. A joint market is a business establishment set up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producer cooperatives, to jointly sell the products of their members for wholesale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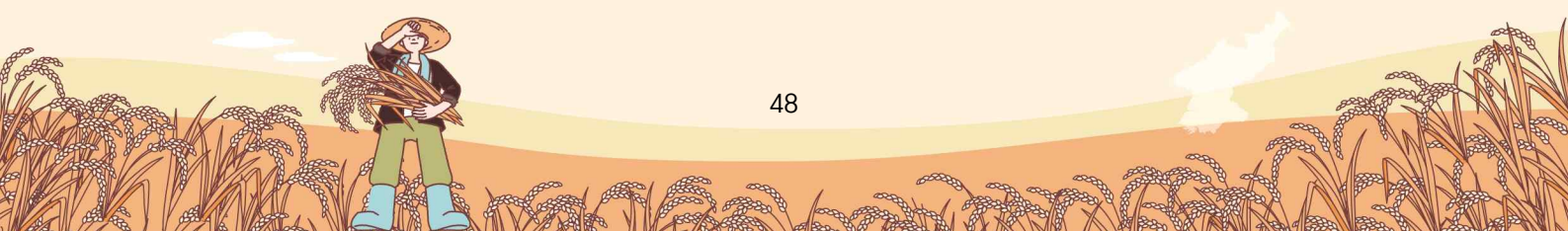
In the case of South Korea, producer organizations' joint markets have functioned as wholesale markets for agricultural products since the 1970s. Joint markets have been evaluated to have played various roles, such as responding to farmers' information asymmetry and weak bargaining power, controlling supply and demand, reducing distribution costs, and ensuring fair and transparent transactions.

As North Korea has experience in introducing market-economic elements in the past even under its state-run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business model could be acceptable to North Korea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commona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ast, even under the state-run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there were active efforts to utilize market-economic elements, such as allowing individual transactions through farmers' markets and direct sales stores of cooperative farms, either alone or in association, and applying differential purchase prices depending on the timing and grade.

Since cooperative farms, the basic agricultural production unit in North Korea, originated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s, it seems that cooperative farms are suitable as a basic unit for applying the South Korean model of producer cooperative distribution organization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pose and cooperate with North Korea to jointly develop related models.



In this class, we have looked at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finance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n North Korea and the possible futur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concludes the fourth lecture on "Agriculture in North Korea." In the next fifth lecture, we will explor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a way to envisag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Thank you very much.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4周

朝鲜的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

4-1

朝鲜的农业金融1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朝鲜的农业》讲座的金成南。这节课作为第四堂课我们以“朝鲜的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为题进行。

这节课，我们将通过了解朝鲜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相关的发展过程，从金融和流通两个方面深入了解朝鲜的农业。

金融，简而言之，就是资金的融通，农业金融就是农业部门所需的资金融通。纵观现代资本主义发展的历史，可以发现金融的发展产生了深远的影响。

经济主体们根据各自的处境，当消费少于收入时资金会有剩余，而有时也需要消费比收入更多的资金，从而需要资金，而金融或金融市场的作用就是将资金供应与资金需求联系起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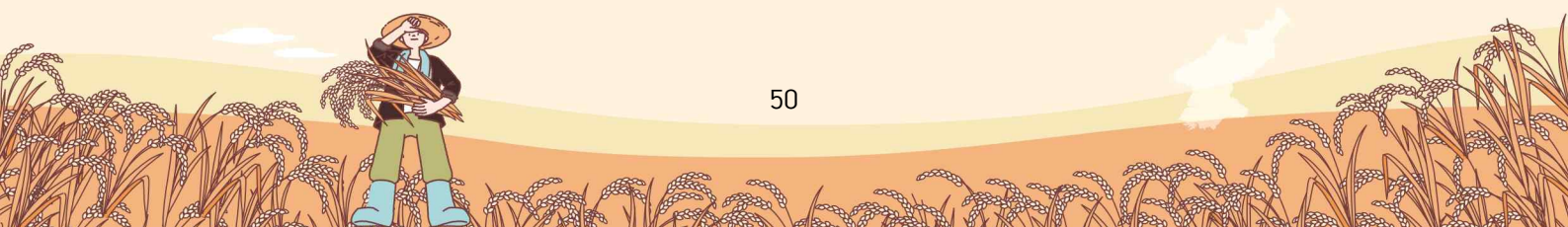
即使是同样的经济主体，根据生产方式，在某些时候资金有剩余，又在某些时候资金会不足。调整资金供求时间上的不一致，也是金融的作用。

从农业部分的生产过程来看，全年生产集中在收获季，因此收入也只在特定时期发生，相比之下作物在生长期期间，化肥等农资或劳动的投入会持续，持续需要资金。因此，农业金融也被视为农业发展历程中一个非常重要的因素。

与金融是资金的融通相比，流通意味着产品本身的融通。从供需不匹配的角度来看，在农产品产区，自我消费后剩余的剩余农产品很多，而在不生产农产品的地区，如果没有流通过程，甚至无法完成基本饮食。

可以说，协调这种空间上的不一致是农产品流通的作用。不得不说，从现代资本主义的发展历程来看，流通，换句话说，区域间的物流移动在扩大市场和经济增长中起到了重要作用。

综上所述，通过本节课了解朝鲜的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的发展历程，作为产业评估朝鲜农业的发展历程，可以更深入地理解朝鲜农业。



朝鲜经济从建国至今一直维持着社会主义计划经济，每年的粮食作物总产量低于需求，外汇短缺也限制了从国外进口农产品，因此处于慢性粮食短缺状态。农业产业本身的能力也落后，而且坚持着计划经济，而不是市场经济，因此，不禁怀疑朝鲜是否真的存在农业金融。

结论就是，虽然最近朝鲜在政策上努力发展商业银行制度和电子金融交易，但据了解，仅从农业部门来看，金融的作用微乎其微。然而，如果看看朝鲜的建国初期，会看到一个完全不同的形象。

1976年，金日成主席在与党和经济机关工作者交谈时发表了以下讲话：

“即使其他国家的人来询问我们国家在农村金融事业的经验，我们也无法有条理地解答。因此，不久前，我把将过去我们创建和运营农民银行的经验写成一本书，将这一任务下达给了相关部门工作人员。”

甚至为了向其他国家传授具体秘诀，指示整理建立和运营农业金融机构即农民银行的经验。事实上，当年出版了一本名为《有关农村金融事业的伟大领袖金日成同志的教导》的册子，通过此册子可以比较具体地了解朝鲜建国初期农业金融机构的建立过程。

朝鲜的农民银行建立是在从殖民时期解放出来的第二年1946年完成的。韩国方面，在10年后的1956年作为农业金融机构农业银行才正式出现，相比之下朝鲜在很早时期开始对农业金融表现出了浓厚的兴趣。

回顾朝鲜为何如此急于建立农业金融机构，可以发现，朝鲜的土地改革，进一步也是土地改革的背景，南北间政治势力就建立政府问题产生了矛盾。

金日成和共产主义势力为了在政府建立过程中占据优势，将在苏联军政府统治下的朝鲜地区迅速进行土地改革。解放后不久，农业领域最紧迫的挑战就是通过土地改革取消地主制的问题。

地主字面意思是土地的所有者，而地主制时的地主不仅指土地所有者，加入了农业经营的观点，虽然持有土地但不直接进行农业经营的人占有大部分农地，实际进行农业经营的农民是没有土地的租借农户状态，指这种不在地主。

这种地主制在朝鲜后期发展起来，经过日本殖民时期，地主，特别是拥有一定规模以上的农地，向实际耕种者提供租田的，即租赁地主，扎根成为殖民时期农政的主要伙伴，进一步强化了这种制度。

殖民时期即1930年代以后，为了缓解这种地主制也做出了一些政策努力，但并不能从根本上改变农地所有关系，因此，在解放后不久，不管南北阵营都主张从根本上清除这种地主制。

作为参考，用数据来看地主制的现状，截至1914年，南北合起来全体农地的52%是租佃地，从土地分类来看，在收益高的稻田中，这一比率为65.3%，在以自我消费为目的的小规模耕种较多的旱田中，租赁地的占比是44.2%。在经历了殖民时期后，以1944年为基准，全体农地的62%，分成水田和旱田来看，水田的72.6%，旱田的54.6%成为了租地。

在这种情况下，虽然没有人提出为了废除地主制而进行土地改革的必要性，但利用何种方式解决问题却议论纷纷。

为了废除地主制，必须把现有的不在地主拥有的农地所有权交给实际拥有该农地的农民，为此，政府应有偿购入地主的土地还是无偿没收，分给农民时应无偿赠与还是有偿给与，如果收取代价应用何种方式，例如偿还期限应如何设定等等，根据不同政治阵营提出了各不相同的方案。

朝鲜国内也根据阵营不同，对具体实施方案的意见也不一致，金日成主张的无偿没收、无偿分配方案一度迅速浮出水面。包含这些内容的土地改革方案在苏联布尔什维克中央党部敲定，并随着朝鲜临时人民委员会宣告成立，1946年3月正式颁布了土地改革法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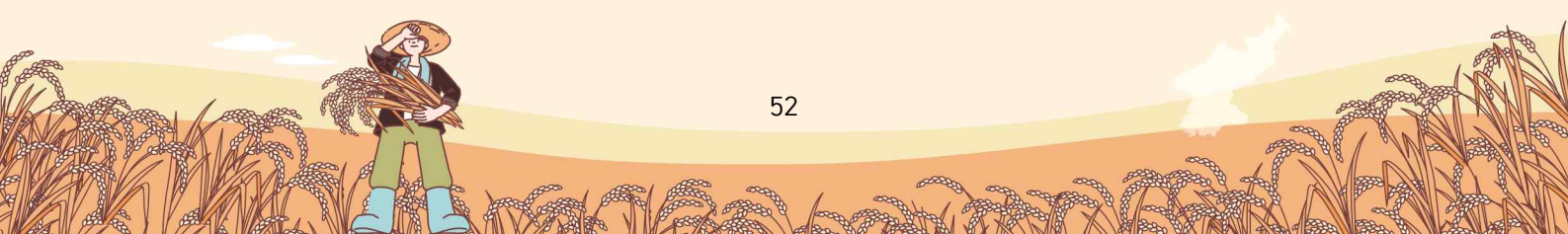
韩国方面，持续到1948年的美军政体下，只是有偿分配了过去日本人所有的农地，而以整体租地为对象的农地改革，于1950年才得以实现，相比之下这些工作在朝鲜进展相当快。

从朝鲜迅速着手建立农业金融机构，在解放不到一年的时期全面实施土地改革，其背景可见一斑。在土地改革法颁布的次月1946年4月，金日成在朝鲜临时人民委员会发表演说时指出，必须通过资助农业资金，保障农民的务农事业，巩固土地改革成果。

“我们现在正在进行土地改革。土地改革结束后，耕田的所有农民都将是土地的主人。因此，在我们面前摆着，千方百计帮助农民做好务农事业的重要任务，而完成这项任务对于巩固和发展土地改革的成果具有重大意义。”

“最好拿出一家专门为农民提供融资事业的银行。让农民做出应有的出资，使农民银行成为农民的合作信用机构。我们接管了过去日本帝国主义分子为掠夺我国农村而组建的金融合作社，这些财产也应作为组建农民银行的本钱。

正如金日成在演说中所说，朝鲜标榜合作信用机构的同时，接管殖民时期金融合作社的资产，并针对农民发行股权，以筹集农民银行创立的资本金，从而建立了北朝鲜农民银行。在这方面，通过研究1946年4月颁布的《关于建立北朝鲜农民银行的法令》的内容，可以具体了解。



第5条.位于北朝鲜的各金融组合及金融组合联合会各道支部对其拥有的建筑物、备品等所有财产进行适当价格的评估，并加上剩余现金，投资农民银行。

第6条.各金融组合和金融组合联合会各道支部除截至5月1日冻结的借贷款外把借贷移交给北朝鲜农民银行。但伴随损失可能性的借贷在此之外。

正如我前面所说，在韩国，农业金融机构的建立要晚得多，因此，我们不禁要问，负责殖民时期农业金融的金融合作社发挥了什么作用。顺便说一下，解放后，韩国地区的金融合作社更名为大韩金融合作社。

但由于注重代理化肥供应等政府的各政策项目，未能妥善开展自己的本业务 - 农村信用供给业务，农业金融处于萎缩状态。

朝鲜在成立农业金融机构，即北朝鲜农民银行时，接管了金融合作社的资产，同时还发行了针对农民的股权，这些资料仍留在现在的证券博物馆，所以作此介绍。这是1946年3月，一位名叫徐礼秀（音译）的农民支付了200韩元，成为将在同年7月设立的北朝鲜农民银行的两个股权股东的凭证。关于此，《关于设立北朝鲜农民银行的法令》也做了一下规定。

第4条.居住在北朝鲜的农民必须向该银行做出相应的出资，非农民也可以出资。

因此，朝鲜地区全体农民的93%向农民银行缴纳了出资金，而农民银行总资本金的一半筹集于农民。

北朝鲜农民银行在处理国家农业发展金融的同时，还重视农民的个人贷款，并提供务农资金、住房建设资金和生活资金融资。然而，如果看看早期运营情况的记录，似乎并没有那么成功。例如，1948年，金日成访问了农民银行，并做出一下谴责。

“现在发放贷款吗？贷款主要给什么样的人？最好不要给工商业者贷款。”

按照这个指责，从资料中也可以发现，第二年进行了以无畜农家为对象的畜牧资金贷款事业等加强以农民为对象的贷款方案等讨论，但从之后的发展来看，似乎并不成功。

这节课，我们回顾了朝鲜建国初期农业金融机构的建立过程。解放后不久，在政府建立问题上左右阵营间的对立非常激烈的情况下，朝鲜比韩国先发制人进行土地改革的同时，为了确保农民为政治支持基础，迅速将殖民时期金融合作社转换为北朝鲜农民银行。

通过此举加强对农民的贷款，加强农业生产过程，赢得农民的民心，但未能如愿进行是要点。在这种背景下1950年朝鲜战争爆发，不仅韩国，朝鲜也遭受了巨大的人力和物力损失，进入1950年代后，开始寻求新的农业金融机构。

这节课我们回顾了朝鲜的农业金融。下节课我们来聊一聊朝鲜的农业金融发展过程。

4-2 朝鲜的农业金融2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回顾了朝鲜的农业金融。这节课我们接着上节课，来聊一聊朝鲜的农业金融发展过程。

1950年代爆发的朝鲜战争摧毁了朝鲜地区的许多农业生产基础。1953年5月至6月，在停战前，美国空军对朝鲜的主要粮仓——平安南北道的水库进行了密集轰炸。战争造成的人员损失导致农业劳动力的损失。其结果，停战后，农业生产的重建也成为朝鲜地区的重要课题，为此北朝鲜农民银行的作用也得到了进一步强调。

然而，与朝鲜战争前一样，农民银行只专注于有利润的机构贷款，而对农民的贷款仍然处于消极状态，因此，对农民银行的批评开始全面浮出水面。1952年的一项调查显示，农民银行贷款的60%是机构贷款，金日成指示将机构贷款全部移交给央行。

“农民银行必须专门为农民提供融资业务。国家机关、企业、合作团体的大部分业务，全部移交给中央银行，农民银行应专门面向农村开展业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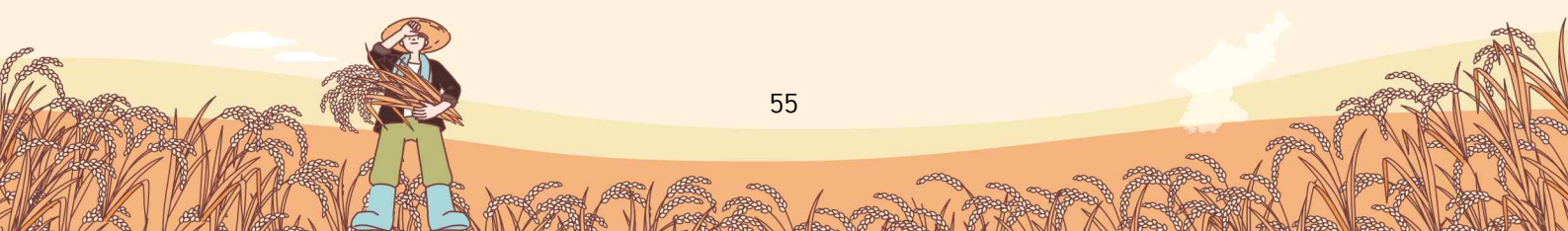
关于机关的业务由中央银行负责，农民银行则按照原来的设立宗旨，集中向农民发放贷款。即使在存款而非贷款的募集业绩中，农民银行的表现也不尽如人意。

调查表明，将农村地区的剩余资金吸收到农民银行的计划只实现了最初目标的20%。在农民银行建立当时，通过农民们直接出资方式筹集资金等，试图在农村经济中建立可以自行筹集资金的自立型金融机构，但事实并非如此。

随着对农民银行批评的出现，到1957年，建立新的农业金融机构的政策开始实施。就是以农村地区为单位建立信用合作社。

在这方面，还有必要了解一下当时进行的农业合作化运动。朝鲜1953年开始，以朝鲜全区为对象，以自然村为单位强力推进农业合作社。朝鲜战争停战后，农业增产问题成为悬而未决的问题，其主要目的在于通过农民组织化提高生产力。

以今天来说，是一种共享经济。因为每个农户在经济上都微小，没有足够的农用牛或农具，但将农民组织成农业合作社，让他们共用不足的农牛或农具，可以解决资本短缺的问题。



从劳动的角度来看，农业在生产方式上在特定时期有时需要投入密集的劳动力，这些问题也可以通过农业合作社框架内的共同劳动来解决。

事实上，这种共同劳动行为从传统时代就存在，当时被称为牛犁（将两头牛为一对拴在犁上进行犁地工作）、互助（也叫换工，互助解决难事），在朝鲜战争时期，当务农物资短缺，据说是当局为了系统地鼓励而组织的。可以说，将农民组织成农业合作社的农业合作化运动，是将这些传统时代就存在的共同劳动行为制度化了。

最初目标是农业增产，但最终目的也是完成农业部门的社会主义改造。因此，朝鲜的农业合作化运动在短短4年将全体农民组织成了合作社。

前面在谈论信用合作社时，解释过农业合作化运动，像这样在组织农业合作社的过程中，信用合作社也同时发展起来。可以看作是在末端单位进行的系统的组织化运动的延申。

在建立信用合作社的同时，将以前向农民银行出资的农民的出资部分全部移交到信用合作社。信用合作社以里（韩国行政区划分为：道，市，郡，区，洞，邑，面，里）为单位成立，每个农民将原农民银行的出资金向自己居住的里新设的信用合作社替代出资。这些措施的结果是，向农民个人发放贷款已成为信用合作社的固有业务。

如果通过朝鲜的资料，看当时信用合作社是如何运作，是这样的。原有的农民银行改为开展与农业相关的机构贷款，据说农民银行的郡支店支援了信用合作社的实务。

此外，以里为单位组建的信用合作社，也受上级行政机构郡的人民委员会指导，由郡人民委员会运营管理委员会和检查委员会，每季度进行一次财务报告大会，并随时审查预算执行情况。

据说，信用合作社贷款不仅用于购买牲畜等务农资金，还用于越冬准备和子女教育费等紧急生活资金，这些成功案例具体地记录在朝鲜发布的资料里。

然而，朝鲜的信用合作社只在短期内运营后，消失在历史长河中。前面说过1957年信用合作社开始组建，到1958年底，随着农业合作社组织化的农业合作化运动的结束，信用合作社并入农业合作社。

从当时的情况看，在以村为单位组织农业合作社的情况下，是按比村更大的单位里运营信用合作社和消费合作社的状态。将所有这些个别的组合合并为里单位的农业合作社。

其结果，联合生产、信贷业务和村商店运营业务等单独运营的职能将全部由里单位的农业合作社承担。具体来说，信贷业务是由农业合作社下属的名为信贷部的组织进行的。

像这样以里为单位统合并出现的农业合作社在1962年更名为合作农场，并一直存在到今天。目前，朝鲜最末端的农业组织即合作农场是在1950年代通过这一过程诞生的。

农业合作社下属信贷部的运营案例也可通过朝鲜资料确认到。也有在农业合作社下设立名为“信贷班”的下级组织，按信贷班设定存款目标后，为实现目标诱发竞争，大幅提高存款额的事例也广为流传，有的地方还为了提高贷款的回收率，提前支付产品收购预约金，并使其用于偿还贷款，将农业生产机能与金融机能有机结合，成功运营了信贷业务。

然而，正如我前面说过的，农业合作化运动的最终目的是完成农业部门的社会主义改造，因此，随着农业合作化运动的完成，将计划经济要素引入农业部门变得更加容易。

曾从事机构贷款业务的农民银行，在这个时候更名为朝鲜农业银行，但这些农业金融机构随着需求减少，被朝鲜中央银行吸收。随着计划经济的深化，由于农业相关机构也可以根据国家计划从其他机构筹集材料，根据计划生产赋予的生产量，然后交付给指定机构就可以了，因此对资金的需求没有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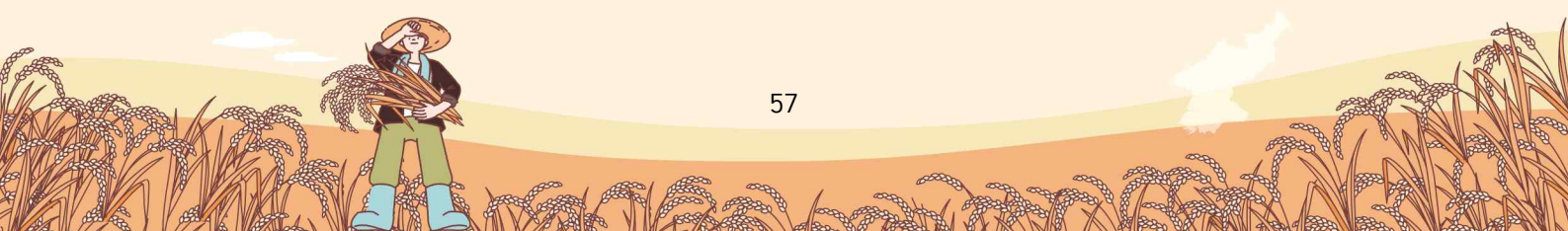
货币只是充当国家指定交易的媒介，中央银行只需要提供结算所需的最低货币。金融的功能是协调各经济实体之间的资金供求不匹配，以及资金供求的时间差异，可以认为，已经开始实施制定了这种精确的协调作用的国家的生产计划。

负责农民个人的贷款职能的合作社信贷部也失去了其职能，因此，虽然没有具体的资料可确认，但1960年代以后只剩下名义上的组织的可能性很大。

从农民个人的角度来看，从国家获得农业材料等，生产农产品并交付，在这种情况下，它被称为收购，但由于只要响应收购，就没有必要在农业生产过程中从外部获得资金。此外，因为生活用品是领取配给，教育和医疗等服务也在计划经济下国家给提供，由此为生活资金目的贷款的必要性也几乎没有了。

自1980年代末开始，朝鲜将经历一场也被称作“苦难的行军”的严重的经济危机。当时，在社会主义政权崩溃后，作为余波对外贸易崩溃，说明原有计划经济的弊端浮出水面。据了解，农资供应日益减少，到1990年代中期已完全中断。

然而，国家计划赋予农业生产单位合作农场的生产义务仍然有效，从而产生了民间方面的非正规市场。计划的空白由非正式市场填补。偷偷将合作农场的生产物拿到非正式市场售卖，用这样获得的资金再去非正规市场购买农资，以这种方式应对。



生产农资的机构同样为了筹集原材料需要资金，因此，他们生产的农资不会提供给国家，而是偷偷拿到市场售卖。随着市场运作，自然而然地出现对金融的需求，非正规金融市场也开始发展。

1990年代经过艰难的行军，通过与中国的小麦贸易积累了财富的称为钱主的新兴势力不断壮大，通过这些钱主或有权力的党员干部等，非正规金融市场得以发展，合作农场也依靠这种非正规金融市场得以继续农业生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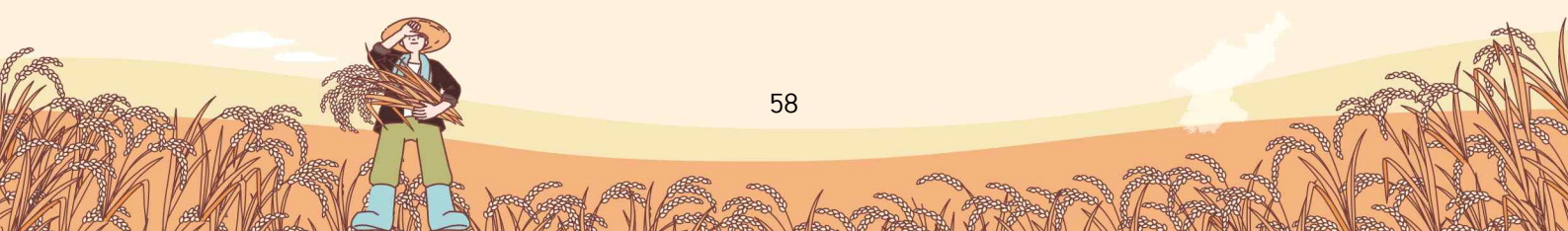
据了解，接触这种非正规金融的机会较少的个别农民主要利用谷物高利贷。例如，春荒期粮食吃完了，承诺用秋天收获的产物偿还，从富人家借粮。

然而，最近对逃北者进行的一项问卷调查显示，包括谷物高利贷在内的农民个人角度利用金融市场的情况似乎并不多。据调查，每5人中就有1人有利用金融市场的经验，这可以理解为，农业生产是以合作农场为单位共同进行的，主要是以合作农场利用金融市场。

今后，如果朝鲜的农业部门改革取得进一步进展，使个别农民作为生产主体能确保更好的自律性，那么，个人参与金融市场的机会可能会进一步增加。

为了在农民的立场上有效地应对市场，必须增加投资支出，在市场价格高的有利时机为了出售农作物也需要金融。因此，我认为，随着朝鲜市场化进程的发展，增进与朝鲜在农业金融领域的合作将是一个非常希望的合作项目。

这节课，我们回顾了朝鲜农业金融的发展历程。下节课，我们将讨论朝鲜的农产品流通情况。



4-3 朝鲜的农产品流通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回顾了朝鲜的农业金融发展历程。这节课我们来聊一聊朝鲜的农产品流通体系的发展过程。

流通与金融一起首先在调节商品空间供需错配方面是市场发展的重要因素之一。通过了解朝鲜农产品的流通经历了哪些过程，我们可以更深入地理解朝鲜的农业经济。

在讨论朝鲜农产品流通之前，首先需要了解朝鲜传统的国营商业体系。可以说，朝鲜的传统国营商业是通过国营商业网的“订购制”来确认最末端的商品需求，将其反映到国家生产计划后，再通过国营商业网重新供应的体系。朝鲜的《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社会主义商业法》第11条强调，这种订购制是商品供应的原则。

“商品供应是根据订购制的供应。中央商业领导机关、地方行政经济领导机关和商业机关、企业所应当研究人民群众的需求，制定商品订单，国家计划机关应当按照商品订单编制商品生产、分配、供应计划，由商品生产机关、企业所、团体按照国家计划生产供应商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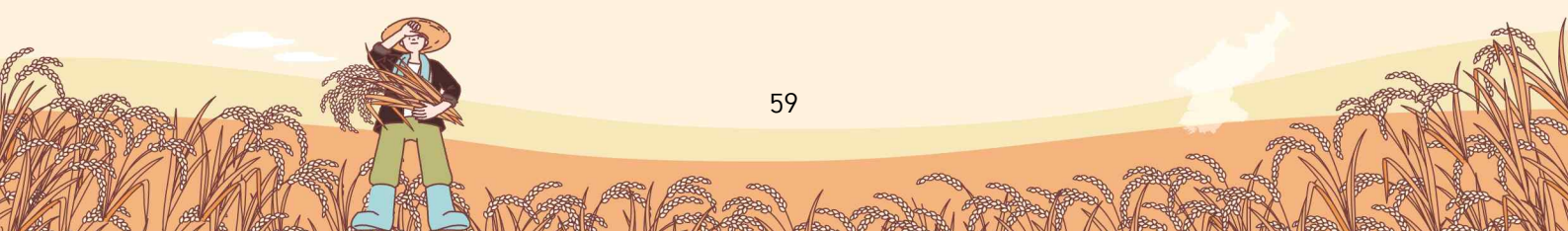
即，为了树立经济计划一个个确认个人需要是什么后，把其完全生产并供应才是重要的。像这样“彻底了解需求和供应”的国营商业体系的核心在朝鲜的《社会主义商业法》68条中阐述的“我们家庭手册”条款中也可可见一斑。

“商业劳动者是负责人民生活的人民的忠仆。商业劳动者在掌握商品需求和供应上应借鉴<我们家庭手册>中的经验，为居民提供所需的商品，并始终要文明友好地为人民服务。”

这里所说的“我们家庭手册”是指慈江道全川郡商业管理所所长郑春实（音译）为了了解居民需求而实际使用的方式，具体地说，郑春实在《我们家庭手册》中记录了居民的服装尺寸和鞋子号码、结婚和花甲日期、家庭大小事等，并利用这些在适当的时候确保需要的商品并供应。

1964年，金日成在现场指导慈江道地区时，看到郑春实制作并利用了《我们家庭手册》，称赞它是共产主义商业的萌芽，是非常好的需求研究方法，也是社会主义商品的供给方法，因此此后，《我们家庭手册》被认定为社会主义商业的模范案例，随着1992年的《社会主义商业法》颁布，被明文规定为法律条款。

逃北者们的证词显示，在计划经济运行良好的时期，在朝鲜个人需要的像牙膏之类的生活用品也一一调查需要几个，并配给。



然而，农业部门只限于谷物等重要农产品才采用这种根据掌握需求的生产和供应方法。对于重要农产品，制定了国家义务购买计划，由合作农场计划购买，其他农产品是采取了通过国营商业机关自由购买的方式。

这种差异可以理解为，是源于可计划生产的制造业与受自然条件影响较大的农业之间的生产方式的根本性差异。通过1989年在朝鲜发行的《实现城乡经济联系的经验》小册子，可以具体地了解国营农产品流通收购体系。

小册子于朝鲜的计划经济系统开始形态化的1990年代经济危机前夕出版，很好地叙述了朝鲜传统农业部门国营商业体系的内容。以这本小册子的内容为中心，我们来聊一聊传统的朝鲜农产品流通体系。

朝鲜当局认为，1945年解放时的农产品流通体系极其微小，个体商人们的牟利行为非常严重，认识到迫切需要国家介入，因此提出了建立社会主义商业的必要性。

评价殖民时期的商业为“大部分商业设施非常落后和小，甚至集中在城市，农村地区是几乎没有商店的状况”，对农村商业更具体地批判说：“个体商人...正在进行以低价购买农产品，拿到城市以高价出售，牟取暴利等牟利奸商行为”。

基于这种认识，朝鲜当局宣布，为了“清算从日本帝国主义继承下来的殖民商业制度，并防止个体商人的投机和牟利行为”建立国营及合作团体商业。

初期，在农村组织了消费合作社，在向农村供应消费品的同时，还起到了开拓农产品销路的作用，但从1964年开始，又重组为国营商业体系，从消费商品类到包括消费合作社在内的社会主义商业的比重仅为3.5%，但1949年大幅扩大至56.5%。

1959年，消费合作社的职能移交给农业合作社，到1964年，合作农场的流通业务由国营商业机关吸收的同时，在初期，个体商业也在保全社会主义商业的观点上被允许，但1958年以后，采取了全面禁止个体商业的措施。

在农产品流通方面，国营商业体系确立后，谷物等重要农产品为计划收购，其他农产品以自由收购为原则。计划收购是指谷物等重要农产品给国家收购机关和合作农场下达国家义务收购计划，收购事业所进行收购后，通过粮食供应站进行配给。

自由收购是指除重要农产品以外的食品、农副产品、宅旁园地副业产品，由收购商店自由收购，通过国营商店销售给消费者，或向生产机关合同销售。不仅利用了收获后的收购方式，还利用了收获季节之前，在生产者和收购者之间具体签订品种、数量、规格、价格等合同的合同收购方式。

例如，在城市地区的水果、青菜-蔬菜国营商店和合作农场之间，按品种、时期确定数量和价格，提前签订供应合同，为了确保城市和工业地区的居民需要的食品农产品供应顺畅，确保周边农村地区为“商品农产品生产基地”。

此外，不仅是现金收购，还利用以向农村供应工业产品为目的地交换收购方式。交换收购是农民在收获季节需要的工业品和农产品相互交换地收购方式，为此，在收获后，据说根据合作农场结算分配的时期，将电视机、缝纫机、自行车、家具等工业品集中供应到了农村地区。

此外，根据收购场所和收购单位利用各种方法，为了让农产品流通最大限度的被国营商业部门吸收而做出了努力，“收购员”直接移动到现场收购的现场移动收购方式，农村的自然村为单位组织委托收购网被选定的委托收购员来收购的委托收购方式，农民为了贩卖，拿到农民市场的商品由国营商店收购的委托收购方式。

另一方面，朝鲜传统国营商业体系中的商品价格实行“唯一价格”原则，或对农产品适用更灵活的原则。工业品方面，为了使城乡间生活水平没有差异，要求以单一价格出售，而青菜和水果等农产品则允许按时期或等级自行调整收购价格。

此外，在农产品方面，除国营商业体系外，还允许通过农民市场进行市场销售，以补充国营商业。农民市场是合作农场休息日开设的定期集市，农民通过这种方式销售剩余消费农产品和宅旁园地副业产品，合作农场也单独或联合合作农场直销店销售计划收购以外的农产品，在这样的农民市场内除农民手工业品外，严禁销售个人工业品，工业品只能在国营商店销售。

允许农民市场的交易价格由供求关系自然产生，但通过在农民市场内设立国营商店，对农产品进行竞争销售，试图通过国营商业体系调节市场价格。

在这样的农民市场政策下值得关注的是，在农产品流通中，既重视国营商业体系，又试图利用市场的机能。值得注意的是，朝鲜在传统的国营商业体系下，也认识到市场是体制中立的，并视其为需要加以控制和利用的对象。

关于市场，评价为，它不是在社会主义制度下产生的，也不是在资本主义制度下产生的，被认为是“在封建社会手工业发展中产生的落后的商业形式”，关于农产品流通，承认国营商业过渡期的局限性，允许通过市场进行交易。

“忽视社会主义社会的过渡性质，试图以行政方式消除农民市场，相反，必须警惕诸如盲目扩大和经营农民市场等倾向”，定下这样的原则。

在1990年代经济危机之前，通过这种国营商业体系的农产品流通机能在一定程度上发挥着作用。根据一位逃北者的证词，在经济危机之前，农产品的国定价格和市场价格几乎没有差别，合作农场也关心以国定价格向机关和企业提供非谷物，可以推测运作良好。

顺便说一下，朝鲜于2003年将原有的农民市场更名为“市场”，并实施扩大许可经营品目的扩大市场措施。通过同样的措施原来不允许的国营企业工业品的直接销售和进口商品得以销售。

然而，从农产品流通的角度来看，因为以前也允许通过农民市场和合同收购进行交易，至少在原则上，很难发现大差异，正式允许进口农产品的市场销售是唯一区别。

然而，1990年代的经济危机之后，朝鲜的国营商业体系开始解体，农产品方面通过官方的国营商业网的流通也大幅减少。由于对农产品的国家收购能力减弱，向非正规活动的私营商贩“非法”销售农产品的现象开始蔓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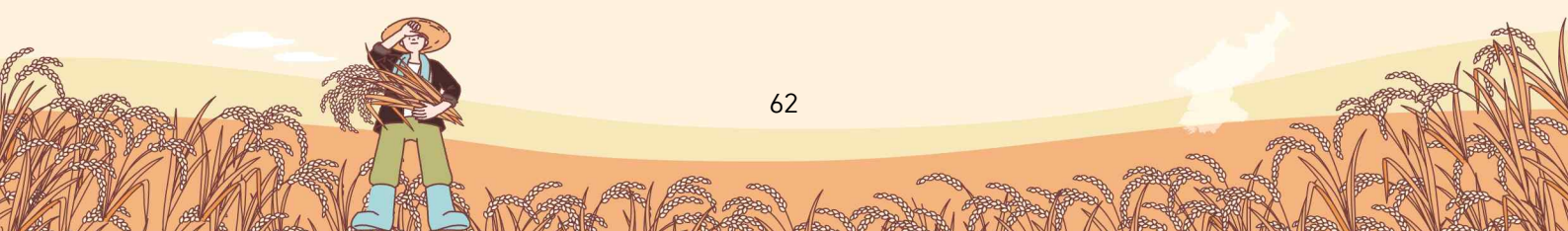
关于这些有许多逃北者的证词，例如大米，在城市地区的商人，在朝鲜被称为“颗粒收割人”，但这些私营商人在附近农村的农民市场兜转购买后，租用公寓仓库保管，再批发零售，据说也有一些大型谷物批发商则利用粮政机关、军队等的机关仓库。

在玉米和土豆等粮食作物方面，与大米相似，私人商贩在农村地区兜转，从合作农场购买，并在城市地区市场销售。蔬菜方面，在私人菜园里培育的情况比较多见，据说是商贩们在菜园里兜转收购。但与粮食作物不同，蔬菜不能长期保存很快就会坏掉，因此大部分倾向于再地区内市场销售。

综上所述，从朝鲜的农产品流通体系来看，在个体商业受到抑制的情况下，通过国营商业网进行流通为主，在国营商业运转良好的时期，对工业品而言可以相对灵活地利用市场，即农民市场。自1990年代以后，随着国营商业网络的彻底崩溃，民间非正规市场开始发展，并延续到今天。

观察最近朝鲜的商业政策可以发现，正试图恢复过去的国营商业网，但我认为，在目前这种对外贸易受限的情况下，其局限性是显而易见的。如果今后朝鲜的市场化得到进展，以过去农民市场的运营经验为基础，有必要合作把农产品的整个流通过程制度化。

这节课我们回顾了朝鲜农产品流通体系的发展过程。下节课我们来聊一聊今后南北间合作方案。



4-4 今后南北间合作方案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回顾了农产品流通的发展过程。这节课作为本讲座的最后一节课，今后朝鲜的改革开放深化，帮助朝鲜促进市场化时，对如何合作比较好，提出几个想法，以此结束本次讲座。

近年来，朝鲜当局引进了“我们式经济管理方法”，扩大了企业和机关的经营自主权，民间的金融需求也逐渐增加。农业部门也实行了农场责任管理制和包田责任制，扩大了合作农场和农户的经营自主权，预计金融需求将会增加。

为应对金融需求的增长，朝鲜当局也在进行制度上的补充，如设立商业银行，但目前情况仍不尽如人意。由于对朝制裁造成的经济困难，商业银行能否确保充足的存款还不得而知，合作农场贷款能否发放也不得而知。特别是，农村地区与中朝边境地区和城市地区相比，非正规金融也不发达，处于金融利益的盲区。

朝鲜过去曾积极建立农业金融制度，因为有经验，如果今后经济条件改善，实现改革开放，也有可能努力重建相关制度。朝鲜曾为了向外国宣传其先进的农业金融制度案例，一度还发行过相关小册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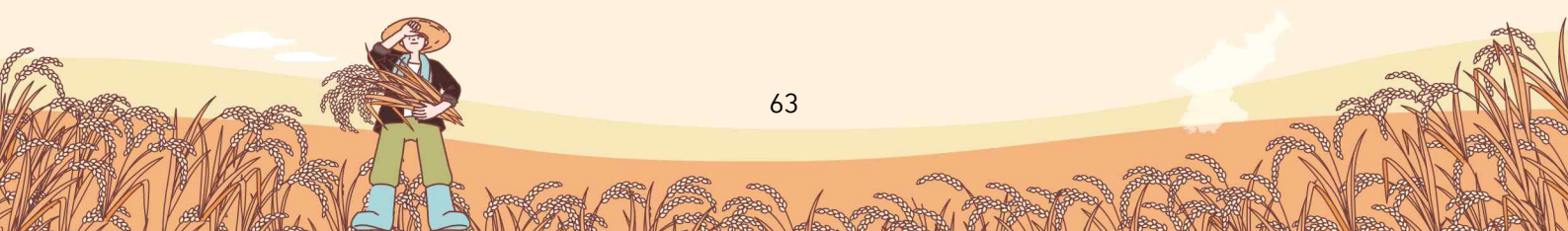
最近，随着朝鲜当局进行包括新设商业银行等一系列金融体制改革，在过去强调了银行作为资金融通机关的作用的金日成的“教导”也再次受到关注。因此，今后在全面推进南北农业合作项目时，有必要考虑将其与金融合作联系起来，并以此提高项目效果。

由于预计朝鲜当局对重建农业金融制度非常感兴趣，因此估计对商业提案的接受程度也会相对较高。此外，我认为，这不仅有助于确保合作项目的可持续性，而且也有助于提高朝鲜农民的自立能力，这也就是最初发展合作的宗旨。

虽然未来可能还需要进一步精细化项目模型，但综合相关的先行案例，我们似乎可以得出以下项目的基本方向。

首先，需要由南北金融机关联合设立共同基金，并通过共同出资设立和运作基金。合作对象可以是朝鲜中央银行或是以道为单位成立的商业银行。此外，今后在农民个人贷款时，还可以考虑恢复目前只保留了名义的合作农场信贷部，将其用作一线金融窗口。

第二，需要将贷款项目与发展合作项目联系起来，以促进农业生产。像仔猪和小山羊等小牲畜和农械不要无偿支援，而是通过基金提供优惠贷款，以吸引他们分期付款购买。通过将还款业绩与是否增加贷款联系起来，防止将贷款浪费在消费上，并提供有效用于生产活动的诱因，这一点非常重要。



此外，由于这一构想的前提是，小牲畜和农械能够顺利地供应到市场，因此有必要通过发展合作项目在朝鲜境内建立生产和供应这些产品的体系。

第三，在早期，贷款业务有必要只针对合作农场开展。过去IFAD（国际农业发展基金）曾以为朝鲜农村为对象试行过小额融资项目，如果参考这些案例，则可以了解到，农民的经营能力未得到确认的情况下开展个人贷款，则可能无法充分实现促进农业生产的最初项目目标。此外，如果大量农民贷款还款延迟或不履行债务，则也有可能成为威胁项目可持续性的因素。

第四，自合作农场贷款业务取得成效以后，需要通过制定债权保全方案，有必要将业务扩大到农民个人贷款。朝鲜目前除个人消费物品外不承认私有财产，因此，如果朝鲜不进行划时代的制度改革，短期内，以人作为担保是不可避免的。

顺便说一下，像朝鲜一样，不承认农民私有土地的中国，在建立农村金融机构时，曾采用“五人联合担保”方式。此外，南北双方共同建立担保和保险机构，为农民贷款提供第三方担保的方案，我认为也可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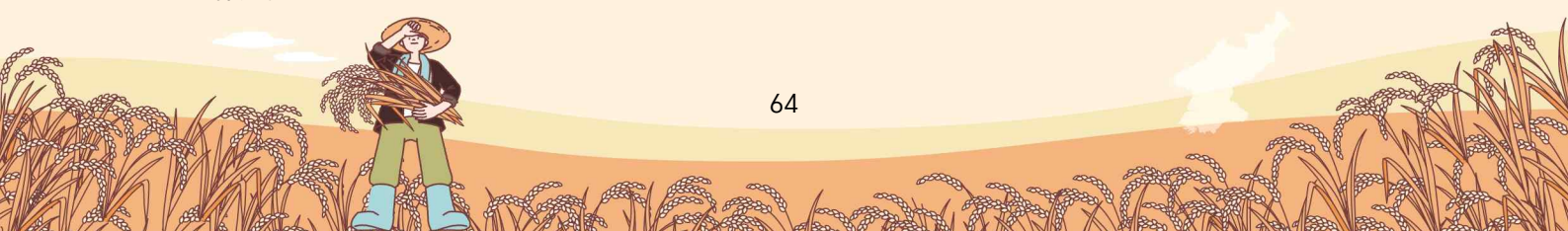
在中国，曾利用向协会支付相当于贷款金的25%的保证金，获得协会的担保，或利用贷款和保险产品相结合的方式，在违约时通过保险进行债权人赔偿。另一方面，考虑到朝鲜居民的手机使用率较高，可以考虑利用IT技术进行债权管理的方案。

第五，从长远看，有必要逐步减少外部机关投资，扩大农民个人的存款和投资，向相互金融模式转变。通过南北农业合作项目与金融合作的有效衔接，在朝鲜农业重建，农民的收入水平有所提高等条件成熟时，应准备建立全面的相互金融制度。

过去在韩国引入相互金融时，通过合并里洞组合实现规模适当化是一个重要问题，因此，在转换相互金融模式时，有必要对事业单位的适当化做出判断，而对朝鲜来说，虽然必须具体考虑每个地区的农民数量和农民收入，但只考虑行政区的话，将4个里单位合作农场合并为1个相互金融区域似乎是合理的。因此，如果我们打算在日后过渡到相互金融模型，必须从成立初期基金开始，审慎选择事业对象范围。

关于农产品流通，可以参考韩国的生产者合作团体流通机构模式。集贸市场是指由生产者合作团体即农业合作社开办，合作成员们为了批发交易产品共同贩卖的营业场所。

以韩国为例，1970年以后，生产者团体集贸市场正式履行了农产品批发市场职能。集贸市场对农民信息不对称和交易交涉能力处于劣势做出应对，被评价为起到了调节供求、降低流通成本、公正透明交易等作用。



朝鲜过去在国营农产品流通体系下也引入过市场经济要素，因此，如果着眼于双方的共同点，有望成为朝鲜可以接受的事业模式。过去，在国营农产品流通体系下，通过农贸市场进行个人交易，允许单独或联合合作农场进行直销，并实行按时期、等级分别适用收购价格等，积极利用过市场经济要素。

朝鲜的基本农业生产单位即合作农场，最初起源于农业合作社，因此，适用韩国生产者团体流通机构模式为基本单位会比较恰当，有必要积极向朝鲜提议共同开发相关模式，并开展合作。

这节课，我们回顾了朝鲜的农业金融和农产品流通的发展历程，并探讨了可设想的南北之间未来合作方案。以此结束《朝鲜的农业》的第四堂课。下节第五堂课我们来聊一聊南北农业合作方案 - 对朝鲜的人道主义援助。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서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5분

<보기>

()(이)란, 간단히 말해 자금의 유통을 말하는데, 농업()(이)라 함은 농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 발달은 현대 자본주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① 유통
- ② 물류
- ③ 금융
- ④ 저축

정답 ③

해설 농업 금융은 농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 부분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연중 생산은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 또한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작물의 생장기 동안에는 비료 등 농자재나 노동 투입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자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금융은 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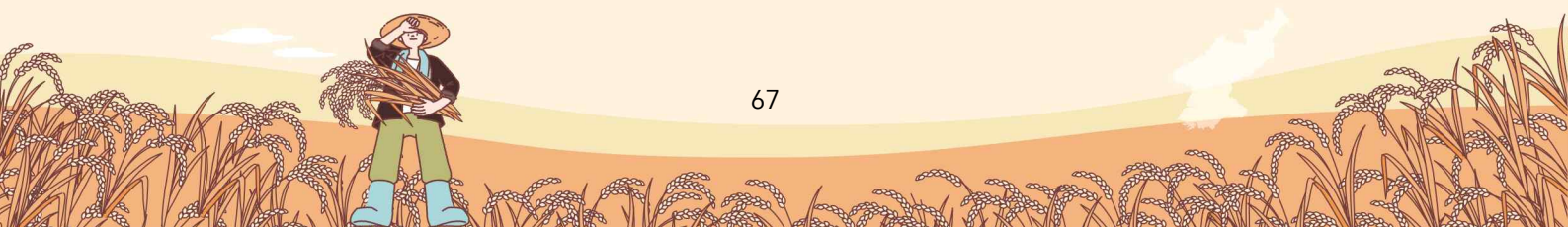
02 다음 중 북한의 농업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분

- ① 1946년에 농업금융기관인 북조선농민은행을 설립하였다.
- ② 자국의 농업금융제도를 해외에 선전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였다.
- ③ 북조선농민은행은 일제 식민지기 금융조합 자산으로부터 자본을 전액 조달하였다.
- ④ 계획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없어지자 농업금융기관을 폐지하였다.

정답 ③

해설 북한 당국은 1946년 토지개혁 직후 곧바로 농업금융기관인 북조선농민은행을 설립하였는데, 북조선농민은행은 일제 식민지기 금융조합 자산을 인수하는 한편, 농민들의 금융기관임을 표방하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주권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였습니다.



03 다음 중 북한에서 발생한 보기의 사건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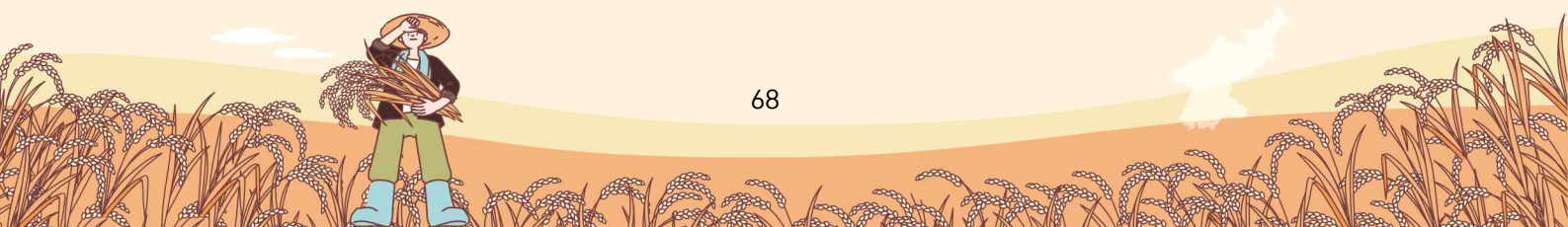
<보기>

- 가) 북조선농민은행 설립
- 나) 신용협동조합 설립
- 다) 농업협동조합 산하 신용부 설치
- 라) 협동농장 설립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가) → 다) → 나) → 라)

정답 ①

해설 북한은 1946년 북조선농민은행을 설립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농민은행이 농민 대출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1957년 농민 대출 기능을 전담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1958년 말에 신용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신용부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1962년에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협동농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04 다음 중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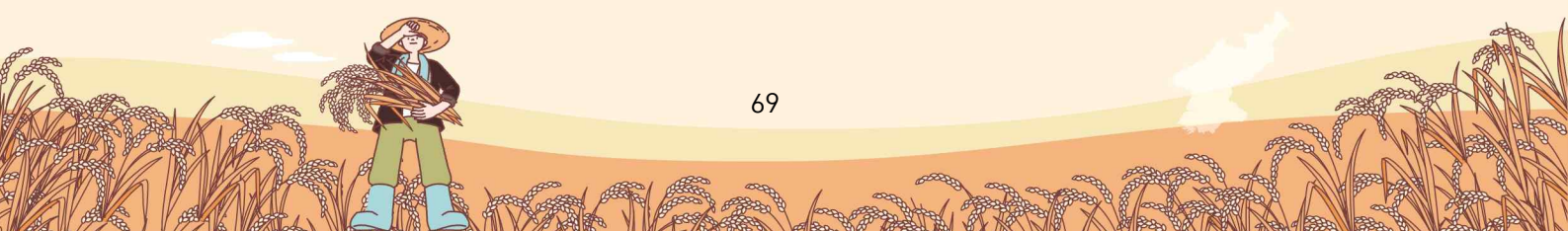
<보기>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밀무역 등으로 부를 축적한 ()라는 신흥 세력이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나 권력있는 당 간부 등을 통해 비공식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협동농장도 이러한 비공식 금융시장에 의존하면서 농업생산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 ① 낱알 거두개
- ② 돈주
- ③ 물주
- ④ 데코

정답 ②

해설 돈주란 북한에서 신흥 부유층을 일컫는 단어로서 돈의 주인의 줄임말입니다.



05 다음 중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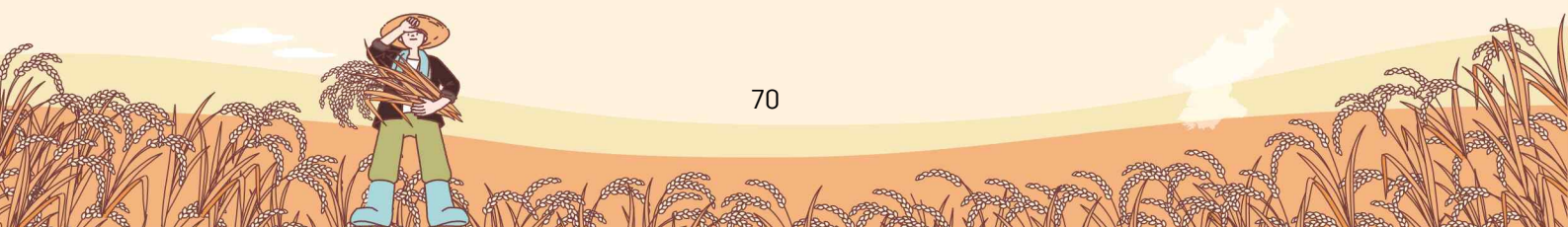
<보기>

()(이)란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이었던 정춘실이 주민 수요의 파악을 위해 실제 활용하였던 방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춘실은 ()에 주민들의 복장 치수와 신발 문수, 결혼·회갑날짜, 집안 대소사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활용해 적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확보해 공급하였다고 한다.

- ① 우리 가정수첩
- ② 우리 주민수첩
- ③ 우리 상업수첩
- ④ 우리 행사수첩

정답 ①

해설 북한 당국은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파악한 후 이를 완전히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수요 파악과 공급'이라는 북한 국영상업 체계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가정수첩' 조항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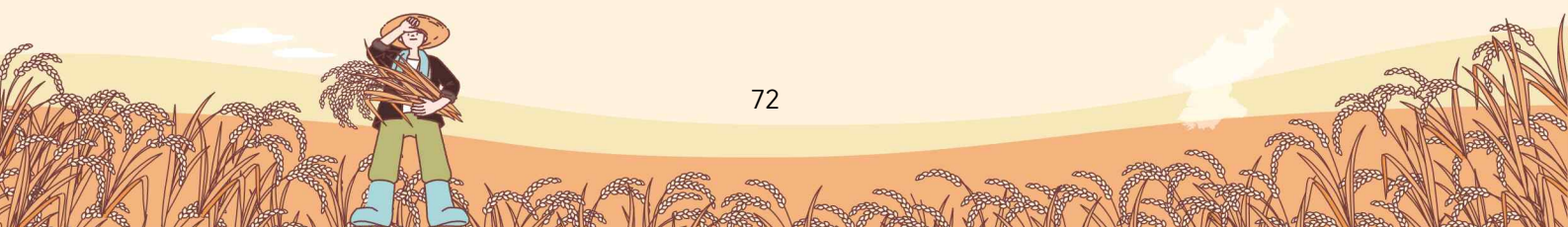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MS워드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과거 1980년대 이전에 북한의 국영상업 시스템이 잘 작동하던 시기의 북한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해 논하시오. (120분)

참고

북한에서 곡물 등 중요 농산물은 국가수매기관과 협동농장에 국가의무수매계획을 하달하고 수매사업소가 수매를 실시한 후 식량공급소를 통해 배급하였으며, 중요 농산물 이외의 식료품, 농부산물, 텃밭 부업생산물은 수매상점이 자유수매하고, 국영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생산기관에 계약판매하였습니다. 이외에 국영상업망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수매일군들이 농촌 생산 현장을 직접 이동하며 농산물을 수매하기도 하였으며, 국영상업의 시장가격 조절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시장 내 국영상점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텃밭 생산물과 경쟁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김성남, '북한 농업금융의 과거와 현재', 『CEO Focus』 제421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20

<https://www.nonghyup.com/introduce/research/ceofocusList.do>

- 김성남, '최근 북한의 상업부문 국영화 시도 동향과 평가', 『NH북한농업리뷰』 2021년 2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21

<https://www.nonghyup.com/introduce/research/newsLetterView.do>

